

광 고

원양산업

제 1126 호

(2020년 10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4 /
- 협회-포항해양과학고 기술인력 양성 MOU 체결 5 /
- 협회, 「2020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6 /

■ 협회 9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7 /

■ 오징어 요리 만들기

(오징어 야채덮밥) 7

- WCPFC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보류 42
- 호주 남방참다랑어 자국 판매 확대 추진 42
- 스리랑카 소매 체인점, 참치 품질 평가 앱 사용 52
- 참치 틈새 브랜드 Safe Catch, 판매 급성장 62
- 방콕 가다랑어 가격, 역사적 추세 따라 계속 하락62
- 중계업자들, 방콕에서 가다랑어 낮은 가격에 선계략
- Veda, 만타 가다랑어 어가 상승 지속 견인 72
- 일본 냉동 눈다랑어 재고 급증 82
-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량, 어획 통제 규칙 수준보다 높여
-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소형 중심, 조업 저조 지속02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9월 보고 내용 17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8월 공해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22 /

■ 오징어어업 동향

-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약세 17
- 일본, 2019년 러시아산 냉동 오징어 수입 40배 23
- 러시아 살오징어 10% 감소한 5,300톤 23
- 중국 PINGTAN사 신조 채낚기 10척 출항 33
- 도요스 시장 오징어 입하 40% 증가 33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TAC 2025년까지 50% 감소 가능 4/
- 명태 수요 증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예상 53/
- 일본, 명태 TAC에 “전차(가불)” 제도 승인 63/
- 러시아 시장에서 자국 명태 필렛, 중국 제품 대체 3/
- Mowi, 미국 알래스카 명태 냉장 분야 진출 7/
- 도우난 남태평양 명태 조업 초반 고진, 10~11월 조업 예상 8/

■ 꽁치어업 동향

- 일본 미야기에서 생 꽁치 첫 어획 9/
- 일본 신선 꽁치 7~9월 70% 감소한 1,200톤 9/
- 日 냉동 꽁치 재고 반감된 7,000톤, 냉동 오징어 16% 증가 10/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東洋製罐 GHD, 배양 새우에 출자 11/
- 문어 유럽 업체 구매 강해 일본 업체는 열세 14/
- 생선 요리 1위 인상은 “건강” 14/
- 일본 2019년 식용 수산 가공품 생산 3% 감소한 154만톤 14/
- 2019년 수산 식용 가공품 3% 감소한 154만톤 3/
- 일본 8월 해산물 수입 9% 감소한 14만톤 3/
- 문어 양식 기술 확립에 진전 4/
- 대일본수산회 30일부터 씨푸드쇼 개최 5/

- 일본 2020년도 수산 백서 「마켓 인」 특집 54
- 日 TAC 관리 새로이 방어, 참돔 등 15종 로드맵 초안 공개 6/
- 코로나 「실적에 악영향」 80%, 4개월 연속 감소 64/
- 일본공고 「코로나 수습 후 과제」 조사 74

■ 각국 수산 동향

- 노르웨이 Aker BioMarine사 남극 크릴조업 지원선 진출 1/
- ICES 대서양 고등어 2021년 쿼터 권고량 8% 감소한 85만톤 1/
- NAFO 2021년 대구 쿼터 삭감, 새로운 회원국 환영 1/
- WTO 미국의 對중국 로인 관세는 무역 규칙 위반 15/
-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제의를 1년 연장 15/
- 무르만스크에 첨단 어류 가공 공장 문 열어 15/

■ 쉬어가는 난 (詩)

- 바다가 쉴 때는 <이해인> 25/

■ 국내 수산 뉴스

- 10월부터 해수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35/
-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35/
-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 45/
-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55/
-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 국제 공표 55/

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27만원 보장 합의



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박길주)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염경두)은 지난 9월 23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보유한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의 2020년도 임금협정서 및 부속(업종별) 협정서에 서명했다.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270,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하여는 최저 인몫을 승하여(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주부식비는 기준금액(1인 1일 1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금액을 선원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협정서에 명문화 했다.

선원에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계속 승무하는 1년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20일)에 5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0년도 임금협정서 시행 시기는 월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0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부식비 및 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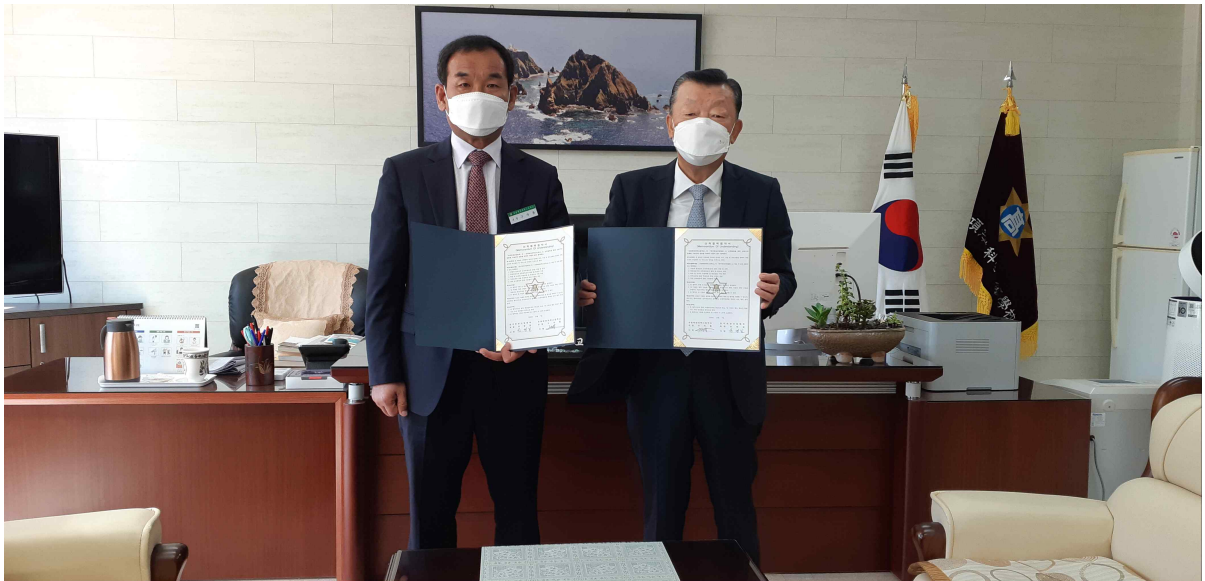
한편, 원양노사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 외에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참치연승 업종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단일화 하여 선장과 자신의 의사로 중도에 하선한 선원을 제외한 한국 선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 2021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참치 선망 업종은 협정일로부터 일몰 이후 전제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선장이 선원의 동의를 얻어야 전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징어 채낚기 업종은 평상시에 외국에서 선박 입·출항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선박이 국내로 입항함에 따라 참치 연승, 풍치봉수망과 같이 국내 입·출항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체항업무비를 협정서에 담아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체항업무비는 한국에 입항, 체항 중인 선박에 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한국선원에게 임금 외에 교통비 등으로 1일 2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협회-포항해양과학고 기술인력 양성 MOU 체결 산업수요 맞춤형 해기사 확보 기대



우리 협회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지난 7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박길주 노사위원장(경양수산 대표),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구자룡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산업체 현장실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장 전문가의 산학겸임교사 활동 및 멘토링 지원, △학생 및 교사의 직장체험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취업 기회의 제공,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산학협력 지원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해양과학고는 현장 교육 및 취

업 기회 확대를, 원양업계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확보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편, 포항해양과학고는 현재 스마트수산해양 분야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상태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받으면 마이스터고로 확정돼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윤명길 회장은 『우리 협회와 고등학교 간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산분야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협회는 국내 선원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계 고등학교, 해양수산업수원 등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 「2020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생산 및 수출 등 다양한 원양산업 통계자료 수록

우리 협회는 최근 원양산업 각 부문의 실적을 총망라한 「2020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19년도까지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원양산업의 생산 추이, 수출 추이, 원양어업 경영체 추이 등 원양 부문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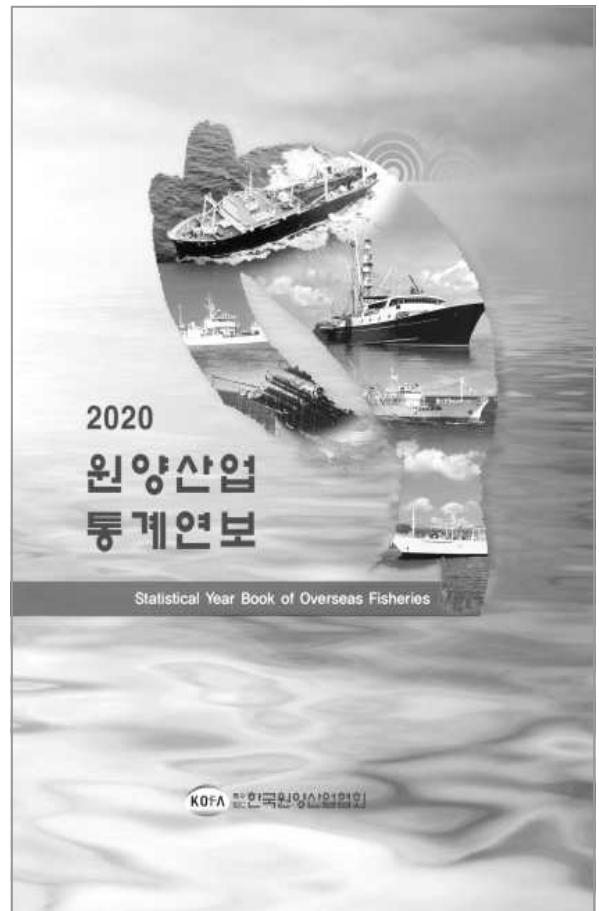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각종 원양어선 통계와 원양선원 통계 등도 수록했으며 원양어업 어장도, 국가별 해외합작 원양산업 진출 현황도와 국제수산기구 해역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담았다.

아울러 원양산업 전체 생산량, 원양산업 비중(순수 어류 생산량), 원양산업 주요 어종별 공급 추이, 원양수산물 수출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원양산업의 역할’을 도표로 보는 원양산업(총괄) 맨 앞 페이지에 배치해 시각적 이해를 도왔다.

2020 원양산업 통계연보는 본문에 게재된 원양 생산, 수출, 어선, 선원, 어가 추이 등의 경우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본 체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2019년도분 통계 내용을 추가, 보완해 수록했다.

이와 함께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및 수출입 동향, 일본, 미국, EU,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주요 국가 및 지역, 국제수산기구의 주요 수산통계 등 참고자료도 보완해 담았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원양산업 통계집이 원양산업의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원양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 관계관들과 원양산업을 연구하는 학자 및 학생 등 각계 각층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 9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20.8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9.9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12척 68.91억원 원안 의결
- 2020 통계연보 최종 검토 및 인쇄완료, 배송 추진
- 제25회 바다의 날 기념식 장관표창 수상
 - 신라교역 기관장, 동원산업 기관장
 - * 전수조치
- 회원 자동제명
 - 회사명 : (주)청빙수산
 - * 前. 북양합작 업종
 - 자동제명일 : 2020.3.31
 - 사유 : 폐업2
 - * 총회원사 : 47개사(특별회원사 15개사)
- ‘20. 협회비 부과 추진
 - 4/4분기 월회비 및 8월분 업종별회비
- ‘20. 8, 9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조사표 제출 (해수부 원양산업과)
 - 협회 현황, 재무제표, 수입내역 및 최근 3개년 결산서 등 자료작성 제출
 - 최근 3년간 평균 정부지원액 비율이 21.68%로 공공기관 요건 미해당 판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창립 제40주년 기념 포상협찬
 - 일자/장소 : ‘20.9.30 / 해양소년단 각 지방연맹별 기념식장
 - 조치사항 : 협회장 표창장 및 부상 협찬 전수조치 (10명/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대한 서명운동 협조
 - (목적) 전국 수산인의 서명운동을 통해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와 제도개선 요구 등 수산 업계 의견을 국회, 정부기관에 전달
- ‘2021 해양수산물편람’ 제작 관련 자료 협조 (한국수산신문사)
 - 협회 임원, 부서장 전화번호 및 회원명부 송부
- 2020년도 미사용 법정연차 휴가 사용촉진 촉구안내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말 3개월전 사용 서면촉구
- 2020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9.1~11.21, 한신메디피아 건강검진센터)
- ‘20년 8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01,935	86
- 참 치	196,045	79
· 횡감용	25,270	91
· 통조림용	170,775	77
- 명 태	13,929	107
- 오징어	33,373	232
- 콩 치	1,361	31
- 기 타	57,227	81

회원지원부

○ 노사 관련 업무 추진

가. 제7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9.2, 12: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내용 : 2020년도 임금교섭관련 협의

나. 노사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9.17, 12: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외 1인
- 내용 : 노사합의안 문구조정·정리

다. 2020년 임금협정서 체결을 위한 조인식 개최

- 일시/장소 : '20.9.23, 11: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0년 임금협정서 체결

* 회원사, 해양수산부에 공문 안내(9.25)

라. 오징어채낚기 어로계약서 항목경비 관련 노사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9.24,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원양노조, 오징어채낚기선사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어로계약서 항목경비, "입어료" 건 협의

○ 제35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준비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9.1,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8개 주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세미나 개최방식(영상), 발표주제 등 논의

○ 순직선원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실무자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9.8, 11:00 / 부산 마린센터
- 참석자 : 해상선원노동조합 및 7개 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20.10.25(일)일에 간소하게 행사 개최

○ 원양어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추진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TF 1, 2차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1차) '20.9.10, 14:00 / 해수부
(2차) '20.9.21, 15: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업감시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안전관리지침(안) 협의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수요 조사(전화원사/9.18)

○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 추진

가.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 방문

- 일시/장소 : '20.9.14, 16:30 / 부산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 참석자 : 해수부 장관 등 / 협회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복지교육원 현황 확인 등

나.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 업계 간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9.18, 15:00 /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외, 원양노조, 원양업계 / 협회

- 내용 : 외국인선원 임금 및 인권개선 등을 위한 협의

○ 국회 맹성규의원실 이택준 비서관 방문·면담

- 일시/장소 : '20.9.28, 14:30 / 국회 맹성규 의원실

- 참석자 : 맹성규 의원실 이택준 비서관, 동원산업 민병구 전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국감(10.8)관련, 원양외국인어선원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설명

- 2020년 제2차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9.23, 14:30 / 전주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외, 선원노련 등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협의
- 제434차 선급위원회 서면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9.24 / 서면회의
 - 내용 : 8.17~9.20 탈급선박 심의/보고, 등록 선박 및 정지 선박, 탈급유예선박 심의 등
- 2021년 조정관세 관련 업무 추진
 - 가. 조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 자료 제출(해수부/9.2)
 - 냉동명태(22%), 냉동꽂치(26%), 냉동오징어(22%) 유지 건의
 - 나. 2021년도 조정관세 적용 품목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9.21,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 외 / 해외협력 2부장 외 2인
 - 내용 : 조정관세 적용 필요성 등 협의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 조희(전화원사/9.2)
 -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 교육 이수증 발급 등
- 어선법 상 선박검사 관련 수요조사 (전화원사/9.7, 9.10)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서 선박검사 수요조사
 - '20.9.14-30일 : 1개사 1척
 - '20.10월-12월 : 4개사 6척
- 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 관외생산확인서 발급 사실 확인(중구청/9.8)
 - 3개사 4척
- 2021년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전화원사/9.8)
 - 희망인원 및 필요사항 등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기업인 및 선원 입국 방역지침 관련 알림(41해구출어사/9.8)
 - 원양어선원 입국과 방역지침 점검사항
- 2020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표창 후보자 추천
 - 동원산업 1인
- 원양어선검사 관련 수요조사 회신(한국선급/9.15)
 - 5개사 7척
- 2020년도 수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사업 생산확인서 발급 확인(부산 서구청/9.18)
 - 1개사 1척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재해보상 부분 건경 적용요청(전화원사/9.29)
 - 선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 수정
- 202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 조사자료 제출(해수부/9.16)
 - 52명중 33명 편입
- 코로나 관련 회원사 안내 및 조사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안내(전화원사/9.3)
 - 코로나19 선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철저 이행요청(회원사/9.7)
 - 원양어선 제27해인호 비자발급 협조 요청(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9.8)
 -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PCR 음성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회원사/9.10)
 - 해천707호 필리핀선원 편승입국 허용요청(해수부/9.15)
 - 선박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알림(전화원사/9.22)
 - 원양 외국인선원 편승입국 제한알림(전화원사/9.25)
 - 선원 임시생활시설 밀착접촉자 퇴소 안내(전화원사/9.29)

○ 해적관련 업무추진

- 가. 서아프리카해역 해적피해 예방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9.1, 14:00 / 영상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담당 사무관, 동양수산, 동원산업, 신라교역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 납치사항 상황 공유, 예방대책 점검 등
- 나.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보고서 공유(전화원사/9.4, 9.11)
- 다. 싱가포르 해협 통항 시 해적경계활동 강화 요청(전화원사/9.7)
- 라.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 통항·조업제한 요청(전화원사/9.10)
- 마.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보고서 공유(전화원사/9.18, 9.24)
- 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보고서 공유(전화원사/9.18, 9.24)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9월호(제1125호) 제작
 - 협회소식 2건(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사업 홍보 등)
 - 국내소식 7건, 해외수산정보 41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 (125개소 319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70호 9.2, 71호 9.9, 72호 9.16, 73호 9.23) /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70호 정보 13건(태평양 참치 어업 코로나 19 지침 도입/ NOREBO 신조 트롤선 진수 / 일본 꽁치 8월 조업 90% 감소 가능성 등)

- 제71호 정보 15건(올해 중서부태평양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日 신선 살오징어 8월 조업 10% 감소한 3,200톤/ 日 선박 평형수 검사 장비 소개 사이트 등장 등)
- 제72호 정보 11건(중계업자들, 방콕에서 가다랑어 낮은 가격에 선 계약/ Mowi, 미국 알래스카 명태 냉장 분야 진출/ 대일본수산회 30일부터 씨푸드쇼 개최 등)
- 제73호 정보 12건(참치 틈새 브랜드 Safe Catch, 판매 급성장/ 러시아 명태 TAC 2025년까지 50% 감소할 수도/ 일본, 2019년 러시아산 냉동 오징어 수입 40배 등)
- 각 호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보도자료 배포 (9.23, 부산 일간지, 수산전문지)
- 국제신문(9.24), 한국수산신문(9.28) 4면, 수산인신문(9.28) 6면
- 나. 원협, 포항해양과학고와 기술인력 양성 MOU 체결(10.7, 부산 일간지,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경제(10.12) 2면, 한국수산신문(10.12) 4면, 어민신문(10.12) 5면
- 해외선원모지 이장 지원사업 광고 업무 추진
 - 언론사 광고안 배포, 게재
 - CBS 라디오(9.1~10.7) 부산일보(9.3) 1면, 국제신문(9.3) 1면, 농수축산신문(9.4) 10면, 한국농어민신문(9.4) 10면, 수산인신문(9.7) 8면, 어민신문(9.7) 6면, 한국수산경제(9.7) 3면, 한국수산신문(9.7) 8면, 수산신문(9.14) 6면
- 현대해양 창간 51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송부 (9.18)
 - 현대해양 10월호 게재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2021어기 한-FSM 참치선망 입어협상 개최
 - 기간/장소 : '20.9.8-9 / 화상회의
 - 참석자 : (FSM) 해양자원청 이사회 의장, 해양자원청장 등 (우리나라) 태평양 참치선망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2021어기 FSM 수역 입어조건, ODA 지원 등 협의
-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제6차 어획 할당기준 기술위원회 참석
 - 기간/장소 : '20.9.15-16, 19:3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몰디브 등 IOTC 회원국 및 NGO 등 약 100여명 (우리나라) 해수부, 동원산업, 사조산업 / 협력1부 차장 외 2명
 - 내용 : 향후 대면회의의 논의를 위한 연안국 및 EU 제안서 비교 검토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업위원회) 제16차 기술 이행위원회 참석
 - 기간/장소 : '20.9.23-29,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PNA, FFA, 일본, 미국, EU, 중국 등 (우리나라) 해수부,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 협력1부 차장 외 2명
 - 논의내용 : 2019년도 보존조치 이행평가, 코로나 19에 따른 대응조치로 발생하는 이행사항, WCPFC IUU 선박 목록 등 논의
- 2021어기 한-투발루 참치선망 입어협상 개최
 - 일시/장소 : '20.9.24, 1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투발루) 수산부 국장, 경제학자, 자문 등 (우리나라) 태평양 참치선망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2021어기 투발루 수역 입어조건, 선원 경비, 전채세 등 협의
- 참치어업 지원사항
 -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키리바시 '20/'21 어기 입어약정 체결
 - 약정기간 : '20.9.15 - '21.9.14
 - '20/'21어기 키리바시 참치선망선 1척 추가 입어 요청
 - 중서부태평양 수산분야 감염병 확산 대응 프로토콜 안내(영문-한글)
 - OPRT(책임있는참치어업추진기구) '20년도 선박 등록 및 경비 배정(105척)
 - PNG 리라 환초 좌표 전달(FMC가 사용 중인 비공식 좌표)
 - 인근 조업 시 참고하되 보수적으로 선을 그어 사용할 것을 당부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국제수산기구별 어획할당량 전배 현황 보고 (해수부)
 - ICCAT, CCSBT 이행보고서 작성 협조(해수부)
- 오징어어업 지원사항
 - 가. 제7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9.3,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남서대서양 오징어어업 출어사 / 협회 해외협력1부
 - 내용 : MSN1873에 대한 선주의견관련 대방사 회신의견 및 후속조치 등 논의

- 나. 제7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후속조치
 - MSN1873 전면 재검토
 - 2020어기 어획권한약정 정산 자료 제공
- 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불법어업 벌금 강화법 의회 통과 안내 (남서대서양 출어선사)
 - 아르헨티나 정부의 불법어업 관리 강화 차원의 벌금 강화로, 포클랜드-아르헨티나 EEZ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의 안전 운항 당부
- 라. 선박안전관리자교육 추가개설 안내
 - 협회 요청에 따른 선박안전 관리자교육 추가개설(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교육일정 : '20.9.24-25 / '20.10.5-6 (2회)
- 마. COVID 19에 따른 포클랜드 입항선박 보고 요령 개정내용 안내
 - 입국 시 제출 서류(IDC5 양식), 격리 면제 요건 등
- 차량계약소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기간 : '20.10.1 ~ '21.9.30
- 2020년 전자조업보고 기능 고도화 사업 중간 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9.24,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품원, 과학원, FMC, 셉컴 / 협력1부 차장 외 1명
 - 내용 : 기존 전자조업보고 기기 변경 등 과업 진행 현황 보고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러수역 모니터링센터 서비스 이용관련 내용 알림 (9.10 / 콩치위원장)

- 나.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북양트롤 국적선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알림 (9.14 / 북양트롤어업위원장)
 - 러수역 조업선 통제 감독관 승선 관련 내용 알림 (9.17 / 북양·대구 위원사)
 -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감독관 승선 계약서 서명본 제출(9.18 / 동북극국경수비대)
 - 감독관 승선경비 송금 알림(9.21 / 동북극국경수비대)
 - 러수역 조업선 입어료 송금 알림 (9.28 / 주러한국대사관)
 - * 북양트롤 : USD 3,254,796, 대구저연승 : USD 658,006, 콩치붕수망 : USD 159,002
- '21년도 러수역 조업 쿼터 및 입어료 등 협상대응 화상회의 참석
 - 일시 : '20.9.16,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수협, 업종별 위원장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회의내용
 - 업종별 희망 쿼터량 및 입어료, 협상 의견 확인
 -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희망쿼터는 전년대비 소폭상승 요청 및 입어료는 동결 희망
 - 콩치붕수망은 2년 연속 조업량이 전무함에 따라, 업계 요청대로 쿼터량 축소, 입어료 인하, 조업 수역 확대를 러측에 요청기로 함
 - * 회의개최 안내 및 협상대응 안건 제출요청 (9.11 / 러수역조업선사)
- 러시아 수산청 온라인 컨퍼런스 참석
 - 일시 : '20.9.22, 19:00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수품원 검역검사과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수산물 가공 해외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본국 및 본국 인접국, 중국 외 국가로 투자 전향 필요
 -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지출비용 축소 및 판매·공급을 위한 더 나은 방안 모색 필요

- 냉동명태 정부비축 구매 확대 건의(9.15 / 해수부)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 및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생산 업계의 어업 경영 개선 및 냉동명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비축구매 물량 조기 확대 요청
 - * 현안사항 조사(8.31 / 북양위원회, 한러위원회)
- 북양 관세감면 반입량 제출(9.7 / 한러위원회)
 - '20년도 8월분 북양 관세감면 반입량 9개사 16척 60,879톤
-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가. '19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부정징후 소명 자료 제출 요청(9.4 / 승진수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건 소명
 - 나. '19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부정징후 검정 의견 및 소명 자료 제출(9.9 / 해수부)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유류(연료유) 구매
- 제42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 일시 : '20.9.21~25, 20:00
 - 참석자 : 해수부, 협력센터 / 해외협력2부 주임
 - 회의내용
 - '21년도 한국 쿼터 배정 전년과 동일
 - * 새우 25일,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 3M수역 대구 자원량 급감으로 총쿼터 전년 8,531톤에서 1,500톤으로 감소
 - '21년, '22년 연례회의는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개최기로 합의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
 - 가. 제39차 CCAMLR 연례위원회 일정 입수(9.22 / CCAMLR 사무국)
 - 재정위원회 : '20.10.15(목)
 - 이행위원회 : '20.10.16(금)~22(목)
 - 과학위원회 : '20.10.19(월)~23(금)

- 연례위원회 : '20.10.26(월)~30(금)
 - * 한국시각 18:00부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예정
- 나. CCAMLR WG-FSA 및 과학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자 제출(9.29, 10.6 / 수과원, 남빙양위원회)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업무추진
 - 제8차 SPRFMO 과학위원회 참석자 명단요청 (9.23 / 오징어채낚기어업위원회, 동원산업)
 - 제8차 SPRFMO 과학위원회 참석자 명단제출 (9.25 / 수과원)
 - 정일산업 1개사
- 국고보조사업 기본속성 정비 요청(9.10 / 기재부)
 - e나라도움 국고보조 사업 기본속성 정비 안내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10개사 757건('20.9.1-9.30)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9.10,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0.8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0.8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4개사 6척(참치선망 2, 참치연승 4)
 - 출항 : 6개사 8척(참치선망 2, 참치연승 6)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UU 어업 공청회 참석
 - 일시/장소: '20.9.3 / 화상회의
 - 참석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EU,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노르웨이, 한국(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10여 개국,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 내용: 세계 IUU 어업 실태 및 대응현황, IUU 수산물 및 IUU 대응조치(SIMP)의 미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 제16차 WCPFC 기술이행위원회(TCC) 수석대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20.9.5 / 화상회의
 - 참석자: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 내용: TCC 의제, 이행감시보고서 세부 논의주제, 회의 일정 등 논의
- 제16차 WCFPC 기술이행위원회(TCC)
 - 일시/장소: '20.9.22~29 / 화상회의
 - 참석자: 해양수산부 원안산업과 양영진 과장, 서민혜 사무관, 이성재 사무관, 서범석 주무관, 국제기구팀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WCPFC IUU 선박 목록 등 논의
- 제39차 CCAMLR 총회 대비 수석대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20.9.8 / 화상회의
 - 참석자: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 내용: 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 논의 주제 결정, 회의 일정 조정 등

- 제6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
 - 일시/장소: '20.9.15~16 / 화상회의
 - 참석자: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원양협회 진호정 차장, 최봉준 대리, 백상진 사원, 업계
 - 내용: IOTC 수역 내 쿼터 할당기준 수립을 위한 연안국 및 EU 제안서 검토 및 논의
- 제42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 일시/장소: '20.9.21-25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김정례 팀장, 원양협회 최동환 주임, 센터 양재걸 팀장
 - 내용: 관리어종 자원평가 결과 검토 및 보존관리 조치 논의, 회원국 이행사항 평가, 사무국 재정·행정보고, 사무국장 계약연장 등
- 보존관리조치 번역(계속)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 국제노동기구(ILO) 제출자료 번역
 - 해사노동협약(MLC) 2차 이행보고서
- UN 저층트롤 관련 논의 및 결의안 조사
- 일본 해양수산 동향 조사
 - 가.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조사(해양환경정책과)
 - 일본 경제산업성 주최 제6회 처리수 의견수렴회의 생중계 내용 정리(9.9)
 - 일본 스가 총리 처리수 언급 내용 조사 및 한국 언론이 인용한 일본 언론 내용 확인
 - 나. 해양영토, IHO 발간 S-23 관련 동향 조사 (해양영토과)
 - 북방 영토 식생도 관련 동향
 - 자민당 조어도 해양조사 관련 법안 현황 조사
 - IHO, S-23 (동해 표기) 관련 일본언론 동향 조사

- 다. 선박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현황 조사 (원양산업과)
- 라. 월간 일본 동향 작성
 - 일본 수산업 신기술 및 수산업 동향(9월)
- 중국 관련 요청 대응, 자료 조사
- 가. 해양영토 관련 중국 동향 모니터링(해양영토과)
 - 황해/남중국해/동중국해 특이사항 모니터링
 - 황해 위성발사 자료 및 양식시설 설치 지속모니터링
 - 중국 외교부 연례브리핑 해양영토 관련 내용 모니터링
- 나. 해양경제획정 논문 및 학술지 번역(해양영토과)
 - 해양경제획정에서의 비례검증문제 등 총 21개
- 다. 중국 국제수산 월간동향 작성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29건 업로드
 - 3분기 전문가 특별기고 업로드(9.25, 오션스코리아 민호준차장)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에 등록(12건)
- 나. 명예해양수산물 서식 변경 의견조사 결과 알림 (전회원사, 해외수산투자협의회 회원사, 명예 해양수산물9인)
 - 수요조사 결과 반영, 코로나 현황, 경쟁국가 현황을 기존 보고서에 추가하기로 결정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2020년 투발루 수산인프라 지원사업 용역 발주
 - 제빙기, 대형 아이스박스 등 13개 품목 224개
- 나. '18년 ODA사업 내용 변경신청
 - (변경사유) 가나, 세네갈 지원 어시장 설비 통관 예정에 따른 현지 어시장 설치 완료 추진(사업 기한 추가 연장)
 - (변경내용) 사업기한 변경('20.9.30→'20.12.31)

- 다. 세네갈 어시장 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09.24, 18:00/ 서울 사프란
 - 참석자 : 주한 세네갈 대사관 Mr. FAYE 대사, Mr. Geye 1등 참사관, Mrs. Dieng 2등 서기관,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세네갈 어시장 사업 현황 공유, 주한 세네갈 대사관과의 협력 방안 협의, 향후 사업 추진계획 공유 등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
 - 단독기업체 결과(보고서) OFIS 업로드(9.9)
 - 단독기업체 결과 해수부 통계포털 및 KOSIS 업로드용 자료 제출(9.4, 정보화담당관실)
 - 통계조사 단독기업체 조사표 나라통계 입력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 가.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 5차 공고
- 나. 용자 관심업체(인도네시아 현지 새우양식업체) 용자 사업 설명(유선/이메일, 9.10)
- 2020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 운영사업 예산 추가 편성
 - OFIS 리뉴얼, 회계프로그램 도입에 추가 편성





오징어 야채덮밥



❖ 재료

- 조리시간 : 25분
- 재료 : 오징어 : 1마리, 당근 : 1/2개, 양배추 : 1/2개, 피망 : 2개, 옥수 : 5컵, 녹말가루 : 2큰술, 설탕, 소금 : 1작은술, 밥, 메추리알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는 내장을 빼내고 껍질을 벗긴 뒤 가로 세로로 칼집을 넣은 다음 3cm 크기로 네모지게 썰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낸다.
- ② 녹말가루를 물 4큰술에 탄다.
- ③ 당근과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고 피망은 속과 씨를 빼내고 6쪽 썰기를 한다.

- ④ 메추리알은 삶아서 껍질을 벗겨낸다.
- ⑤ 팬을 뜨겁게 달군 뒤 식물성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볶는다. 야채에 기름이 골고루 밴 뒤에 오징어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메추리알도 넣는다.
- ⑥ ⑤에 옥수를 붓고 잘 섞으면서 끓인다. 마지막에 녹말가루 탄 물을 넣고 걸쭉하게 끓인다.
- ⑦ 뜨거운 밥을 담고 그 위에 ⑥을 끼얹어 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9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벨기에 세네갈 협력 논의

- 벨기에 대표단이 세네갈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 Dakar-Kaolack-Ndakhonga 중심 항만 기술 강화, 다카르-바마코

복합 물류 통로 건립, 해양 물류개선, Anvers와 협력(난파선 관리)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360	
	7.5~2 lbs	1,450	
	4~7.5 lbs	1,350	
눈다랑어	20 lbs 상	1,400	
	7.5~2 lbs	1,400	
	4~7.5 lbs	1,350	
가다랑어	7.5 lbs 상	1,400	
	4~7.5 lbs	1,350	
	3~4 lbs	1,2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37 유로 / MT	'20.9.28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선원 묘지 관리

- 피지 수바 선원묘지 축대공사 등 정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인회 및 현지 선장들과 추석맞이 성묘를 실시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79/ kl	'20.10.7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물관



변경대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미얀마 양곤 전체 타운십 통행제재조치 시행, 봉제 공장 강제 휴업 실시

- 9월 20일 오후 8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번호 107/2020를 통해 9.21부터 양곤지역 코코섬을 제외한 44개 타운십 전체 지역에 Stay at Home(통행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행제재조치와 함께 각종 추가 제재조치들이 이어졌다.
- 통행제재조치의 경우 이전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이 이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명만 이동이 가능하며 치료 또는 긴급 상황시에만 운전자를 포함한 2명 이동 가능하도록 조치가 강화되었다.
- 기존 통행제재조치 항목과 함께 관공서 공무원들은 50%씩 2주 단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영업체는 필수 사업으로 지정된 은행, 주유소, 생필품, 식품,약품 등을 판매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 특히 양곤지역 모든 CMP 관련 공장(봉제,가방, 신발 제조 공장 등) 들은 2주간(9.24~10.7) 강제 휴업 조치를 하였다. 그동안 양곤주정부는 공장 내 확진자 발생시에도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조치만 취하고 공장 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제조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격리 기간을 3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격리 또는 치료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외 귀국자, 확진 접촉자,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택 격리 7일로 완화 조치했다.
- 이미 미얀마 정부는 띠잔 연휴 끝나기 하루 전 날 밤 8시에 양곤 지역 봉제공장을 대상으로 보건 실태조사 후 통과한 업체에 한해 공장 가동하도록 한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많은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 바 있었다.
- 이번 조치에서도 여전히 미숙한 행정 조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 조치를 단속하기 위한 검문소를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벌을 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재 조치 첫날인 9월 21일부터 많은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없으며 아메리칸 사모아 10월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전원 개학.
- 모든 공공장소 집회 및 교회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임 및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사회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권장.
- 모든 사업장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스타키스트 참치공장은 제외)
- 모든 항공은 11월 30일까지 연장 중단하며 특별 항공기 입국자는 코로나 테스트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동안 지정한 장소에 격리 조치.
- 어선 및 운반선은 입항할 수 있으나 사전 정부에 입항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입항 시 조건에 따라 선원은 선박에서 14일간 격리 조치.(여객선 입항 중단)

나. 주지사 선거

- 아메리칸 사모아 새로운 주지사(4년) 및 미연방 하원 1명(2년), 주하원(2년) 선거일이 11월 3일로 주지사 후보 4명이 출마했으며, 총유권자는 16,300명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Santa Co	가다랑어	라운드	1,50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1.87(gallon)	'20.10.5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뉴질랜드 트롤선 외국인 선원 '필수근로자' 자격으로 입국 가능

- 전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뉴질랜드 국경이 폐쇄되어 소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9.22부터 외국인 선원도 필수인력으로 분류되어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해졌다.
- 뉴질랜드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트롤선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의 입국이 막힌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조업을 이미 중단했거나 계획 중이었던 선박들이 계속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수산회사 샌포드 미용업계로 뛰어든다

- 샌포드가간장/미용 업체인 Two Islands의 지분 50%를 인수했다. 호키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으로 Two Islands가 신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업계들과 협력을 통해 수산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갈 것이라고 샌포드 대표이사는 말했다.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250	Sea Jho Co.Ltd
	L	2,250	
	M	1,950	
	S	1,90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BARRA COUTA	2L	1,900	Sea Jho Co.Ltd
	L	1,900	
	M	1,850	
	S	1,85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300	Sea Jho Co.Ltd
	2L	3,300	
	L	2,800	
	M	2,40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514/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10.6
	LMFO \$470/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가나 해역 내 불법 전채 끝내기

- 가나 수산위원회 중앙지역지부는 가나 해역에서 자행되는 어류의 불법전채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에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가나 해역에서 트롤어선들의 어로 활동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Saiko"라고 불리는 불법 어획물 전채 활동이 자행되어 많은 전통어업 어민들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어민 대변인이자 GNCFRC 집행위원인 Nana Kweig 는 Anomabo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20년 예산에서 Saiko를 막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지만, 이 위협과 싸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 그에 따르면 Saiko 어획물 위탁은 불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Elmina, Apam, Axim등의 항구에 여전히 하역하고 있었다면서 2002년(법률 625) 제 132조와 2010년 규정 제33조 모두 Saiko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 최근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EJF)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산분야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해양영토 내 일부 외국 선박의 Saiko 불법조업행위가 연간 5,070만 달러 가치 이상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 참치협회 선박 수수료 인하 호소

- GhanaTuna Association(GTA)는 COVID -19 Pandemic시국을 맞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치업계의 불황 탈출을 위해 참치어선에 부과되는 선박수수료 인하를 정부에 호소했다.
- 참치선박에 부과되는 높은 면허수수료는 참치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 실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 수수료는 총등록톤수(GRT)당 35달러에서 135달러로 조정, 새로운 수수료 체계 하에서 1,000톤 선박은 연간 13만 5,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반면, 1500톤 이상 선박은 20만 달러를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항소를 제기한 John Davidson GTA 회장은 15척의 내국적 소유 어선을 계류하여 임시로 유희 상

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당 45명의 선원과 하역회사의 직원 및 임시 노동자 등 약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선박이 비활성화된 2020년 1월부터 실직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 그는 "JL어업, Trust Fishing Ventures, D&H어업, Mayroc Logistics 등 업체들은 집어등을 이용한 멸치 채취 금지조치와 함께 면허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모두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 David회장은 2020년 2월 14일 이해당사자 간에 GRT당 35달러에서 65달러로 비율을 조정하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당국이 GRT당 135달러를 고집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남은 분기 동안 65달러의 합의된 수수료의 50%만을 지불하여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중등을 이용한 멸치어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달라 제안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50	
	10kg 하	1,05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8kg 하	1,300	
	1.5kg 하	1,05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45/kl MGO	'20.9.30	육상급유
SK B&T	\$415/kl MGO	'20.9.30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9.16 기준 확진자는 228,993명이다. 이 중 자카르타 57,469명이다. 총 사망자는 9,100명으로 치명률은 4.0%이다.
- 자카르타 주정부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 대규모 사회적 통제(PSBB)를 재실시했다. 기간은 9.14(월)~9.27(일)까지 실시하되 감소세가 없을 경우 10.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주요 조치사항) 휴교 및 재택근무(사무실은 25%만 출근 가능)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금융, 물류, 소매업 등 11개 필수업종은 예외.
- 단체활동 및 밀집 공간에서 활동 모두 금지.
-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종교 활동 금지, 대중교통 운행 제한.
-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정부지정 병원 및 호텔로 격리 수용하기로 했다.
- * 자택격리 금지, 군정 동원 강제 격리 조치기로 발표

나. 경제 동향

-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영향, 8월 수출액 130.7억 달러로 감소(전월대비 4.62%, 전년 동기대비 8.34% 감소), 석유 및 가스제품은 6.1억 달러로 감소(전년대비 27.4% 감소), 광공업제품은 13.9억 달러로 감소(전년대비 24.7% 감소)했다.
- LG화학 및 CATL(中)과 투자협력 협약 발표(해양투자조정청장관/9.16), 인도네시아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원료 생산국이다.
- LG화학은 현대자동차와 합작사 설립 후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유력하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PERU 생산부의 위성추적 시스템 설치 요청에 대한 사항

- (배경) 현재 FMC(조업감시센터)에서 운용하는 위성장비를 포함한 각종 인마르셋트 위치추적 장비와는 별도로, PERU 생산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여 페루 생산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해당 선박은 페루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어선이며 공문에 명시된 고이동·초지역·초국경 어종은 대왕오징어를 포함한 오징어류, 전갱이, 고등어, 참치류, 새치류, 상어 등으로 해석된다.
- 지금부터 12월말까지 페루에 입항할 어선들은 먼저 공해상에서 조업 후 입항해도 된다. 그러나 출항 전에는 본 기기를 설치해야한다. 출항 후 페루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포클랜드 어장으로 직항한다고 해도 기기를 설치해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 위성기기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동 장비는 1991-2008년 한국 및 일본 채낀기 선박들이 페루 영해 입어 시 사용했던 기종과 유사하며, 장비구입 및 설치비는 US\$ 1,773.10, 월간 사용료는 US\$ 153.40이다.
- 동 위성기기 장착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나. 중국 채낀기 어선 400여척에 대한 보도 자료

- PERU 레푸블리카 일간지는 9.24일 중국 선단이 일명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항의에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에



대하여 7~9월 동안 아르헨티나 해역, 9~11월 동안 에콰도르 서쪽 갈라파고스 해역에서의 금어(禁漁)령을 내렸지만 이 해역을 피해 계속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어선단은 현재 페루 해안에서 약 200해리(약 370km)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고 있다. 페루의 EEZ 밖 공해이지만 페루 해역에 근접한 곳이다. 페루 해군은 순찰선을 동원해 자국 해역에 침입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페루 안디나 통신은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루트를 따라 페루를 거쳐 칠레, 아르헨티나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남미 각국 해양 경비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선단이 타국의 해양 경계선을 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아르헨티나 당국은 실탄을 발사해 자국 EEZ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쫓아내기도 했다. 아예 위성 추적 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코로나 동향

- 9.27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비상사태가 10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다.
- 10.8 기준 페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832,929명, 사망 32,914명, 완치 718,065명이다.
- 금년 3월 16일 국가 비상사태 시작과 함께 중단되었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6개월만에 공식 운항재개 되었다.
- 10월 5일부터 중남미 7개국(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11개 도시에 대한 운항을 시작하며 향후 점차적으로 공식 운항 국가를 유럽과 북미 등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선 임시 항공편은 10월 12일 리마 출발 마이애미항 1편이 확정되었고 KLM 에서는 7.16부터 매주 목요일, 리마-암스테르담 구간을 1편씩 지속적으로 운항중이다.
- 한국-페루 사증면제협정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페루 거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 출장자 또는 관광객은 페루 방문 전 비자발급이 필요하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23 / 갤런 MDO	'20.10.6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관



정연국
명예해양수산관

가. 남아공 동향

- 남아공은 8월 8일부터 락다운 레벨을 2로 낮추기로 했다.

나. 모잠비크 동향

- 모잠비크는 북부에서 IS 반군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 북부 해안을 따라 많은 관광 및 어업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
- 8월 18일부로 모잠비크는 비상 상태를 종료하고 재난 상태로 전환했으며 정부는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개괄했다.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VLSFO \$363 / MT MGO \$460 / MT	'20.9.23
Cape	VLSFO \$365 / MT MGO \$448 / MT	'20.9.24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8월 공해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 마이크로네시아 EEZ 일일 어획량 32톤, 공해 17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은 지난 8월 전월과 비교하여 가다랑어를 적게 잡았지만 큰 사이즈의 황다랑어를 더 많이 잡았다. 8월 어획물은 현재 방콕이나 다른 주요 참치 가공 허브로 운송되고 있다.

PNA EEZ와 주변 공해 어획량 관련 잠정 자료에 따르면 8월 일일 어획량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인 약 24.4톤으로 안정되어 있다. 전년에 비해서는 5톤 정도 낮은 수치이다.

중서부태평양 어선의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 7월 22톤이었으나 8월에는 지난 9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20톤으로 감소했다.

다른 참치 종의 경우 선망선은 평소보다 큰 사이즈의 황다랑어를(9kg 이상) 하루 2.8톤 정도 잡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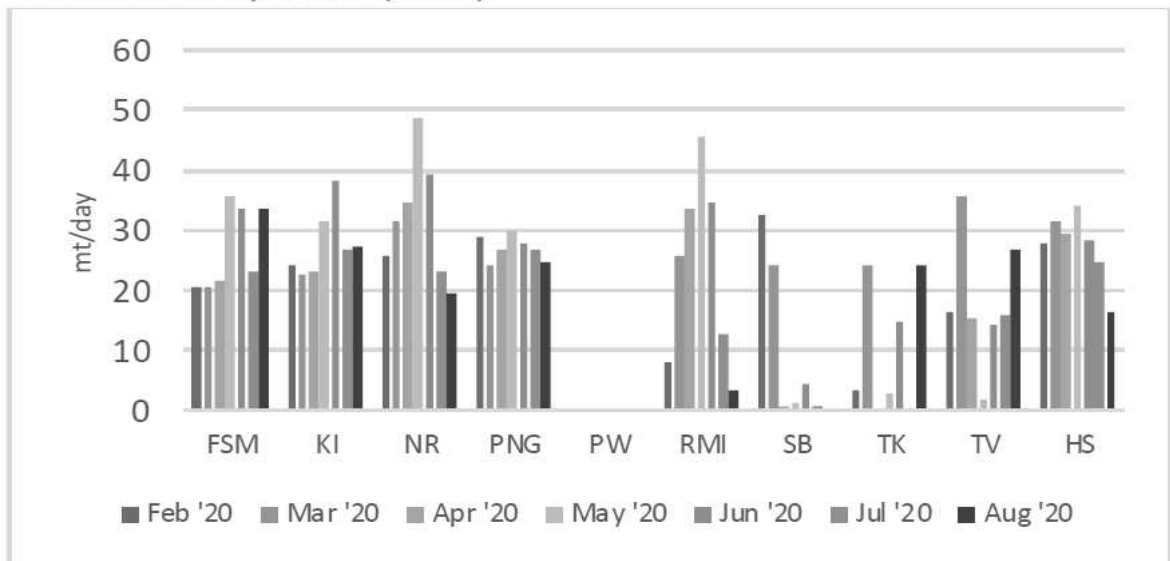
다. 하지만 작은 사이즈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1톤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눈다랑어는 0.1~0.2톤 정도였다.

8월에 선망선들은 공해보다 PNA EEZ에서 참치를 더 많이 어획했다. 8월에 가장 어획이 좋았던 지역은 마이크로네시아로 일일 평균 어획량이 지난달에 비해 10톤가량 증가한 약 32톤이었다. 키리바시와 투발루 일일 평균 어획량은 약 27~28톤을 기록했다.

팔라우,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 EEZ는 8월 동안 선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어장으로 어획량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공해 어획량은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인 17톤으로 떨어졌다.

Catch rate by zone (EEZs)



* 기사 출처 : Atuna, 2020년 10월 6일자



WCPFC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량 보류

WCPFC 소위 대만, 對日 쿼터 이양 거부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 제16회 북소 위원회가 10월 8일 웹 회의로 열려 일본이 요구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20% 확대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해 금년 관리 조치가 1년 연장되게 되었다. 대만에 의뢰했던 일본에 대한 어획 쿼터의 양도는 대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쿼터 증량 안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자원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점 등으로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관리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대만에서 대형어(1마리 30kg 이상) 어획 쿼터 300톤의 양도를 받았었지만 내년 분의 양도는 대만이 거절했다. 대만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국이 어획하고 남긴 잔여 쿼터의 이월 비율을 기존 5%에서 17%

로 증가하고, 소형어(30kg 미만) 어획 쿼터를 대형어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다. 자원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 관리 조치의 변경은 없었다. 내년 북소위원회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太田愼吾 심의관은 『올해야말로 처리(쿼터 증량을 결정)하고 싶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월률을 17%로 증가시키는 조치가 유지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었다』고 한 뒤 『내년에는 금년의 자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것부터 미국의 코멘트를 근거로 관계자와 상담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쿼터 증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CPFC 연례 회의는 12월 상순에 웹 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2일자

호주 남방참다랑어 자국 판매 확대 추진

양식 3사가 가공 개발, 코로나 감염병으로 대일 수출 의존 탈피

호주 남방참다랑어 관련 기업 3개사는 최근 남방 참다랑어 가공품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 기업인 '킹 프리미엄 호주 해산물'을 설립했다. 호주가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는 대부분이 남부 호주 포트 링컨에서 양식되어 일본에 냉동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대일 수출액이 20% 감소했다. 향후 대일 수출을 축소하고 호주 내에서 소비를 촉진 하자는 것이다. 벤처 설립에 참여한 것은 포트 링컨에 사업소를 둔 브라슬로프 피싱 컴퍼니, 슈티아 그룹, 덩코참치 파머스 등 3개 회사다. 각사는 참다랑어 어획과 양식, 판매를 담당, 마이너스 90도의 초저온 냉장고도 갖고 있다. 새 회사

는 남방 참다랑어를 약 20 종류의 토막으로 잘게 나눠 국내 소매점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포트 링컨에 본부를 둔 남방 참다랑어산업협회의 최고 경영자(CEO) 브라이언 제프리 씨는 『국내에서 남방 참다랑어 소비량은 연간 약 250톤. 향후 1,000톤 소비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호주로부터 남방 참다랑어를 수입한 수량은 냉동이 8,249톤, 신선이 703톤, 수입액은 냉동 신선 총액 약 121억 엔이다. 올해 1~8월은 냉동이 1,14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신선이 451톤으로 30% 감소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스리랑카 소매 체인점, 참치 품질 평가 앱 사용 12년 이상 경력 전문가와 동일 주장

호주의 한 스타트업이 스리랑카 슈퍼마켓 체인에서 참치 AI 품질평가 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자금과 주요 파트너를 확보했다.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참치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GoMicro사의 기술은 핸드폰 거치 AI 현미경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진 수의 일부로도 패턴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GoMicro사의 설립자인 Sivam Krish는 일반적으로 수천장의 사진이 필요하지만 100여장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로도 참치와 같은 수산물의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Krish는 『우리는 스리랑카에 스타 투자자 Jeevan Gnanam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100% 소유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GoMicro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동 소프트웨어가 참치 품질을 평가하는데 9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GoMicro사의 투자자인 Gnanam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전국 3대 슈퍼마켓 운영 업체 중 하나인 Keells사의 소유자인 John Keells에게 이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콜롬보에 소재한 슈퍼마켓에서 테스트



되고 있으며 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스리랑카 전역 100여개 슈퍼마켓 매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참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유사한 AI 기술이 개발되었다. Dentsu사에서 개발한 Tuna Scope라는 프로그램은 참치 꼬리 단면 사진을 이용해 참치 품질을 분석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0월 13일자



참치 틈새 브랜드 Safe Catch, 판매 급성장

코로나19 특이한 시장 상황으로 신규 소비자 유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뜻밖에 상온 보관 가능한 수산물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했고 많은 소규모 신규 업체가 틈새 브랜드로 새로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Safe Catch 브랜드 참치 통조림 판매는 올해 8월 9일까지 52주 동안 판매량이 48% 가까이 증가했다. Safe Catch의 전년 대비 성장률(매출액 증가율)은 빅3(Starkist,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를 넘어섰다.

Safe Catch의 Kevin McCay 최고운영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올해 초에 시제품 사용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은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당시 소매점에서 Chicken of the Sea나 Bumble Bee와 같은 참치 브랜드들이 다 팔려 Safe Catch 및 다른 고가 브랜드를 구매했다.

Safe Catch는 올해만 해도 미국 소매점에서 370만 개 이상, 1,170만 달러 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Starkist 판매량의 1%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차

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신흥 브랜드로서는 큰 성장을 이룬 것이다. Starkist는 같은 기간에 3억 1,800만개의 참치를 팔아 5억 1,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Safe Catch는 2015년에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수는 섭취 제한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홍보했다.

McCay 최고 운영책임자는 FDA와 환경보호청(EPA)이 2004년 참치캔 수는 함유량을 경고한 이후 참치캔을 구매하지 않은 30%를 잡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afe Catch는 비영리 기관인 AOAC International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수는 검사 기술이 FDA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인증 받았다.

2018년 Safe Catch는 Echo Capital, Essential Investments, 기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종자 자금 5백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McCay는 향후 확장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9월 21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역사적 추세를 따라 계속 하락

1,300 달러 수준에서 거래, 10월 약세 예상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역사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캔 가공업자의 미온적인 수요로 하락하고 있다.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9월말 현재 톤당 1,300 달러 수준으로 9월 중순 1,500 달러보다 13% 넘게 하락했다. 한 방콕 캔 가공업자는 톤당 1,330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캔 가공업자의 원물 수요 약화가 현재 태국 가다랑어 가치 하락을 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캔 가공업자들은 중서부태평양 참치 공급 과잉이 곧 방콕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에 냉동창고에 충분한 가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모든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들이 FAD 금지가 풀린 후 참치가 모여 있는 FAD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수년 동안 가다랑어 가격은 8월부터 9월말에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8월에 톤당 1,600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현재 300 달러 가까이 후퇴했다. 2019년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8월에 톤당 1,300 달러, 9월에 톤당 1,200 달러, 10월 초에 톤당 1,000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30일자



중계업자들, 방콕에서 가다랑어 낮은 가격에 선계약

현재 1,500 달러에 거래 10위부 선계약 75~100 달러 더 나감

FAD 조업 금지가 끝나가는 가운데 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동력은 정점에 이르렀다.

가다랑어 어가는 지난 몇 년 동안 관측되었던 추세와 동일하게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태국 참치 캔 가공업자들의 원료 구매 비용은 7월 초부터 증가했지만 현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500 달러 정도이다.

소식통은 방콕 캔 가공공장들의 수요가 매우 낮아 냉동 가다랑어 원물 가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 가공업자는 구매자들이 코로나19 초기 몇 달 동안 더 많은 가다랑어를 구입해 참치캔을 대량 생산했으며 이제 천천히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월 운송물에 대한 선 계약은 1,500 달러 보다 75~100 달러 낮게 체결되고 있다. 이는 중계업자들이 FAD 조업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 가다랑어 공급 증가로 인해 다음 달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계업자들은 화물이 오랜 시간 동안 멈춰서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FAD 조업 금지는 9월 30일에 종료되며 역사적 추세를 살펴보면 가다랑어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14일자

Veda, 만타 가다랑어 어가 상승 지속 견인

일각에선 조만간 1,8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반대 의견도

7월말에 동부태평양 어장폐쇄(veda)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가다랑어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당시 가다랑어(1.8kg 이상)는 톤당 1,550 달러에 거래되었다.

한 소식통은 가다랑어 가격이 곧 톤당 1,8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한 가공업자에 따르면 현재 만타에서 가다랑어 가격이 7월 이후 15% 정도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캔 가공업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참치 구매자는 가다랑어 구매를 위해 톤당 1,650 달러를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장에서 다른 구매자가 톤당 1,800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만타 소식통은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이 좋지 않은 어획 상황과 어장 폐쇄로 인해 만타항에 도달하

는 원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에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가는 가격 상승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장 폐쇄 기간 동안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공공장의 재고가 몇 달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현재에도 7월 수준인 1,550 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이 캔 가공업자들의 더 많은 수요를 불러와 어업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항상 9월에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은 어장 폐쇄로 공장의 냉동 창고가 비어가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2016년을 제외한 과거 5년 동안 9월 가다랑어 가격은 7월 보다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15일자



일본 냉동 눈다랑어 재고 급증

앞으로 공급 감소 우려, 관계자 영향 일시적 설명

일본 수산청의 냉장수산물유통조사에 따르면 냉동 눈다랑어 재고량은 1월부터 증가를 이어가 최신 데이터인 6월말 시점으로 1만 3,254톤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로 최고로 많다.

예년 수준의 출고량에도 불구하고, 입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원양 참치 연승어선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눈다랑어 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1월말에 8,941톤이었던 냉동 눈다랑어 재고는 반년만에 4,314톤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로 업소 계통 유통 감소에 따라 재고 증가도 우려되었지만 1~6월 출고량은 3만 2,231톤으로 지난해 동기 3만 1,370톤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입고량은 3만 7,560톤으로 지난해 동기의 3만 2,542톤을 약 5,000톤 상회했다.

2018년 동기의 3만 6,065톤과 비교해서도 입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케이프타운과 라스팔마스에 계선할 수 없는 대서양 조업 일본 어선이 독항(獨航)으로 어획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입고가 앞당겨졌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구미 지역으로의 입항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대만 어선 등이 어획물 일부를 일본용으로 전환한 점 등이 거론된다.

또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과잉 재고로 하역이 정체되어 올해 1월부터 초과 보관료가 발생해 입고를 서둘렀다고 하지만 만고 상태는 장기간 계속되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묵은 눈처럼 쌓여

있던 냉동 황다랑어 재고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슈퍼 등에서 생선회 가공품으로 많이 판매되었다.

재고를 줄인 틈새에 부지런히 입고를 했으며, 가을부터 본격화 하는 해외 축양 참치용으로 비우고 있었던 냉동창고에 정체선 물량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단기간에 입고시켰다는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대체로 관계자는 『이것 때문이라는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고 고개를 가우뚱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눈다랑어 공급량이 감소할 것』 이라는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도네시아인 선원 확보가 어려워 본래 조업 개시 시기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 조업선은 5월부터 시작되는 주어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어 남방 참다랑어 어장으로 바로 가는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서양 조업으로 독항을 선택한 어선은 봄 조업을 도중에 그만둔데다가 10월에 아일랜드 근해에서 시작되는 참다랑어 조업 전의 눈다랑어 조업도 제 시간에 하지 못할 것 같다.

연승어선은 이번 어기 이동 일수 및 이동 척수가 감소해 제한된 조업 기간에 시장 가격이 높은 참다랑어와 남방 참다랑어 어획을 우선하여 눈다랑어 입하가 증가할 요소가 없다고 시장 및 어업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그 때문에 벌써 연말 이후에 눈다랑어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9월 10일자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 어획 통제 규칙 수준보다 높아

2010년 어획량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IOTC 서저 목표보다 만사

2019년 인도양 황다랑어, 황다랑어 어획량은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EU 선박의 어획량 감소로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설정한 목표 어획 감소량(desired catch reduct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IOTC가 발간한 2019 IOTC 명목 어획량(nominal catche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황다랑어 양륙량은 42만 7,24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44만 834톤에 비해 감소했지만 황다랑어 자원 재건 계획이 마련되고 감축 조치가 수립되었던 2017년에 비해 3% 증가했다.

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은 54만 7,248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2018년 60만 9,179톤에 비해 10% 정도 감소했지만 황다랑어 어획 통제 규칙(Harvest Control Rules, HCR)이 실행되었던 2017년 50만 5,486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HCRs는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자원의 상태와 관련된 지표를 기반으로 얼마나 많이 조업할지 결정하는 사전 합의된 가이드라인이다. 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8~2020년에 적용되는 고정 최대 어획량 47만 29톤보다 16% 높은 수치이다.

EU 국적 선박의 어획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황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총 22만 8,769톤 어획해



2018년 보다 14% 감소했다.

최근 벨기에 소매 업체 Colruyt 그룹은 소매 업체 중 처음으로 인도양 황다랑어와 황다랑어 조달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소매 업체들이 Colruyt 그룹의 조치를 따라갈지, IOTC와 회원국들이 더 나은 자원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이 가해질지, 황다랑어 HCR 위반이 인도양 내 기존 MSC 인증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24일자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소형 중심, 조업 저조 지속

1~18일 주요 항구 어획 60% 감소한 1600톤

이번 어기 신선 일본조 가다랑어 어획량은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8월 전국 주요 어항의 누계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만 3,226톤이다. 9월 들어서도 수량은 늘지 않아 상순(1~10일)에는 70% 감소, 중순(11~18일)은 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어장은 일본 토호쿠 연안이다. 1마리 1.8kg 이하의 작은 사이즈와 5kg 이상의 특대 사이즈를 어획하고 있으며, 양관점 등의 수요가 많은 중형 사이즈는 거의 없다. 미야기·긴카산 연안과 이와테 가마이 연안 어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을 중심으로 어획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형 중심이기 때문에 수량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1~18일 주요 어항의 어획량은 60% 감소한 1,601.2톤이었다. 어항별로는 주요 항구인 미야기·케센누마가 70% 감소한 1,265.3톤으로 전년을 크게 밀돌았고, 그 외 시즈오카·오마에자키가 80% 감소한 21.2톤이었다. 보슈카즈우라는 약 2배인 136톤이었다.

소형 중심인 선망물 1~8월 누계 어획량은 소폭 증가한 6,534톤이었다. 7, 8월에는 전년보다 10% 가량 많은 2,800톤 정도를 어획했다. 9월 1~18일 수량은 1% 증가한 777톤이었다. 주요 항구인 케센누마는 2% 증가한 704.8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약세 순조로운 어획 및 코로나로 거래 둔화

올해 해외 오징어 생산 동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미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남미 빨강오징어)가 페루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어획이며 아르헨티나(AR) 마쯔리카(반디꼴뚜기)는 전년 대비 90% 증가로 크게 신장된 것 같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시세는 하락하고 있어 일본 업체에게는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

한편, 러시아산 살오징어는 9월까지의 전년을 하회하는 어획으로 10월에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가 관심 사항이 될 것 같다.

남미 빨강오징어는 칠레, 페루에서의 어획이 중심이다. 칠레는 전년의 5만톤을 상회하는 10만톤을 어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판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한 채 끝났다』고 상사 관계자는 밝혔다.

페루는 순조로운 어획이며 매년 7~11월에 어획량이 감소하지만 올해는 일정량이 계속 잡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50만~60만톤을 어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어선들의 어획도 포함해 합계로 100만톤을 넘을 것 같다.

페루 물 시세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등 코로나 재난에 의한 거래 둔화 등도 있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에 몸통이 kg 당 2 달러 30 센트(C&F) 귀가 1 달러 90 센트(C&F)였지만 최근에는 각각 1 달러 50 센트와 1 달러 못 미치는 가격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다.

다만 많은 제조업체들이 연초에 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서 일본 업체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

상사 관계자들은 『11, 12월의 시황을 보고 구매할 것 같다』고 밝혔다.

<AR 마쯔리카 회복 조짐>

아르헨티나 마쯔리카는 200 해리 EEZ 내와 공해 어획량을 포함해 35만톤 정도를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년의 18만톤을 크게 넘어섰다. 어체도 1마리 300~400 그램, 400~600 그램 중심으로 사이즈도 양호하다.

상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흉어를 벗어난 것 아닌가? 내년에 50만톤이 잡힐 경우 회복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는 100만톤 규모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마쯔리카(반디꼴뚜기) 흉어가 남미 빨강오징어 시세 급등 요인이기도 했으므로 내년 이후 더욱 어황이 회복되면 해외 오징어 시세는 훨씬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오징어 9월 1만톤>

또한 최근 일본 국내 어획량이 매우 저조한 살오징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산이다. 2019년 1만 6,000톤의 어획이 있었다. 지난해보다 조업선이 늘어난 올해는 9월말까지 1만 1,000톤을 어획했다.

상사 관계자는 『척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뒤쳐져 있는 느낌이다. 올해는 2만톤 정도로 보고 있었지만 10월의 어황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어획은 예년 11월 중순 무렵까지 계속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일본, 2019년 러시아산 냉동 오징어 수입 40배 미국산 수입은 마쓰이카(반디골뚜기) 중심으로 2배

수입 냉동 살오징어류(아메리카 대왕오징어<남미 빨강오징어> 반윈니꼴뚜기, 반디꼴뚜기, 불똥꼴뚜기 등 포함)는 최근 주력인 중국산이 안정적으로 반입되는 외에 러시아산이 신장되고 있다. 2019년 총계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8만톤 이상이었다.

최근 3년간 동향을 보면 중국 물은 연간 수입량이 4만1천~4만5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상품은 원양어장의 남미 빨강오징어나 살오징어 대체 상품이 되기도 하는 남미 근해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북한 수역의 살오징어 등이다. 다만 최근 중국 어선의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조업은 부진하고 일본에서는 살오징어가 흥어다.

수은 상승으로 살오징어의 내유가 늘어난 러시아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어선이 본격적으로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은 2019년에 전년 대비 40배인 4,852톤까지 증가했다.

또한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미국에서는 캐나다 일렉스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안정적으로 어획되고 있다. 2019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캐나다 일렉스 오징어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로리고를 포함 2.3배인 6,606톤이었다.

2020년 1~7월은 총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3만 6,764톤이며, kg 단가는 5% 상승한 514 엔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물이 평균 단가 7% 상승(kg 644 엔)했고, 수량은 3% 감소한 2만 1,760톤이었다. 또한 남미 빨강오징어 등 칠레물은 단가가 38% 하락(235 엔)해 수입량이 8.4배인 5,711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7일자

러시아 살오징어 10% 감소한 5,300톤

9월 15일 남쿠릴에서 트롤 조업

홋카이도 기선어업 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트롤 어선은 홋카이도에 접속한 남쿠릴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8월 30일에 시작했다.

조업을 시작한 어선은 22척으로 출발, 현재 대형 어선 3척을 포함한 39척까지로 증가하고 있다.

살오징어 조업 트롤 선단은 하보마이 군도에서 시코탄섬 북부 해역까지를 어장으로 하고 있다. 조업 개시부터 9월 15일까지의 어획량은 5,294톤으로 전년 동기 6,089톤을 13% 밀돌고 있다. 또한 1일 1척당 평균 어획량은 전년 동기의 21톤

에 비해 14톤으로 3분의 2이다. 10 월 전반에는 살오징어 어획량이 9~12톤, 더욱이 같은 달 하순에는 8~11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러시아 트롤 어선은 이 해역 조업으로 약 1만 7,400톤의 오징어를 어획했다.

또한 일본의 지난해 러시아산 냉동 오징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배인 4,852톤(재무부 세관 통계)으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중국 PINGTAN사 신조 채낚기 10척 출항 인도양, 북태평양, 남서태평양, 남서대서양 수역에서 조업 예정

중국 어업 회사인 Pingtan Marine Enterprise는 자사 소속 오징어 채낚기 신조선 10척이 국제 수역 조업을 위해 Weihai의 Shidao항에서 출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출항한 오징어 채낚기 신조선은 10척 모두

길이 65.16m 대형선으로 올해 6월에 선박 건조 공정이 완료되었다.

이들 어선 10척은 중국 농업농촌부의 승인에 따라 인도양, 북태평양, 남서태평양, 남서대서양 수역 조업 허가를 받았다.



* 기사 출처: Fisker Forum, 2020년 9월 18일자

도요스 시장 오징어 입하 40% 증가

5~18일 꾀치 흥어로 양관점 수요 증가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의 신선 살오징어 입고가 순조롭다. 도에 따르면 9월 5~18일의 하루 도매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2톤.

주요 판매처는 슈퍼 등 양관점이며, 꾀치 등 가을의 대중 생선 흥어에 따라 『판매 상품 구멍을 채우기 위해 양관점으로부터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심 어가는 전년 동기 수준인 kg 800~1000엔. 중심 사이즈는 5kg 20~25 마리 들이이고, 야

마가타와 아키타 등의 채낚기 물이 입하되었다. 품질은 예년 수준이라고 한다. 올해는 수온 등의 관계에서 어군의 복상이 지연, 예년이라면 7월부터 시작되는 홋카이도에서의 어획이 『9월 들어 드디어 시작됐다』고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말했다.

향후에 대해서는 『양륙 수량에 따라 시세도 변동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말하며,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의 조업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러시아 명태 TAC 2025년까지 50% 감소 가능 러시아 연구자들 50%까지, 업계는 15~20% 감소 예상

러시아 일부 주요 연구자들은 2025년에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이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명태 생산자들은 미래에 전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

태평양수산업연구센터(TINRO)는 자원량 감소와 어선 조업 능력 증가로 5년 뒤에 명태 TAC가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잠재적 감소는 세계 흰살 생선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명태 어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흰살 생선 어업이다.

Groundfish Forum이 발표한 연간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의 명태 생산량은 전 세계 산업용 흰살 생선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명태생산자협회(PCA)도 명태 쿼터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TINRO보다는 낙관적이다. PCA는 명태 쿼터가 2024년까지 15~20% 감소하여 160~165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러시아 명태 쿼터는 183만톤으로 과거 20년간 최고치이다. 올해 쿼터 중 120만톤은 오호츠크해에 배정되어 있다.

Alexey Buglak PCA 협회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간 뒤에는 항상 감소 기간이 있다』며 『잠재적인 감소로 인해 쿼터가 평균 장기 물량 추세에 맞춰져 자원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잠재적 감소는 특히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기업에게 문제가 된다. TINRO 부국장인 Igor Melnikov는 신조 선박이 생산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명태 트롤선 11척이 추가 쿼터 배정을 대가로 건조중이다.

러시아 연방 어업 기관인 Rosrybolovstvo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으로 러시아 총 명태 어획량은 154만 5,000톤(오호츠크해 A시즌 91만 5,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9월 22일자



명태 수요 증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예상 어획량 감소, 경쟁 심화, 물류 문제 등이 상승 견인

미국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글로벌 공급 부족,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 예상보다 느린 B시즌 어획으로 모든 형태의 명태 제품 가격이 상승(경우에 따라 상당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요 냉동 명태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원물 생산이 작년에 비해 여전히 적다. 연육 생산은 2019년 총생산량에 비해 29%, 껍질과 지방층 제거 제품은 2019년 동기 생산량 대비 20%, 가시제거 필렛은 2019년 동기 대비 33% 적다.

한 알래스카 어업 회사의 임원은 『모든 제품 형태가 B시즌이 지나면 부족할 것이다』 며 『어획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어획량 회복 추세가 너무 느리다』 고 말했다.

구매자들은 이번 B시즌 어획물로 가공한 가시제거 필렛을 지난 7월 가격으로 톤당 3,500 달러에서 3,600 달러에 이미 계약했으며 앞으로 몇 주 이내에 2021년 신규 주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7월 평균 냉동 명태 필렛 수출 가격은 톤당 3,353 달러로 1월에 비해

13% 상승했다.

다른 알래스카 생산자는 『내년 이맘때까지 톤당 4,000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고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수리미 가격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냉수 어종 연육과 동남아 온수 어종 연육, 둘 다 생산이 감소했다. 연육 수출 가격은 7월에 톤당 2,580 달러로 1월 보다 22% 가까이 상승했다. 2019년 1월과 7월 가격 격차는 7%로 올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알래스카 명태 B시즌이 한 달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올해 8월말까지 베링해와 알류산열도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의 약 77%가 소진되었다. 이는 2019년 84%, 2018년 91%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9월 30일자





일본, 명태 TAC에 “전차(가불)” 제도 승인 日 수산청 태평양 계군, 조건부 1만톤

일본 수산청은 9월 18일에 열린 수산 정책 심의회 자원 관리 분과회에서 명태 태평양 계 군에 대한 자원 상태가 좋을 것 같은 해에 익년 이후 어획가능량(TAC)을 1만톤 분 "전차(가불)"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해 어획량 쿼터를 공제하는 제도를 승인했다. 올 가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전차(가불) 제도는 도난 오시마 해구와 이부리 해구 근해 저인망 이외의 실 채포일 평균 어획량이 ① 10월에 500톤 초과 ② 11월에 600톤 초과, 이 두 가지를 충족한(물고기 내유가 많고 자원 상태도 양호한) 해에 발동한다.

전차 제도가 발동된 해의 어획량과 다음 해의 자원분석에 따라서는 다음해 TAC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로 당초 TAC보다 1만톤 많이 어획했다. 다만 이듬해 재계산을 통해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은 당초 예상보다 5,000톤 많았을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경우 어획량이 ABC보다 5,000톤 과잉인 셈이어서 초과한 5,000톤 분을 다음해 TAC에서 빼준다. 재계산한 ABC 쿼터에 어획이 들어가 있으면 TAC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분과회의에서는 일본 수산청이 12월 1일 개정 어업법 시행을 위한 자원 관리 기본 방침 안을 제시, 위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각 어종의 TAC를 정할 때, 목표(최대 지속 생산량=MSY 수준) 자원량을 50% 이상의 확률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목표 자원량을 원칙상 10년 이내에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기했다. 2023년까지 해수면 어업 생산량의 80%가 TAC로 관리되는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 등도 포함시켰다.

TAC 관리의 확대에 대해 홋카이도 기선어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柳川延之 전무는 『MSY의 계산에 어업자는 불신이 있다. 홋카이도는 (정부가 TAC 도입을 검토 중인) 임연수어(관리)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도 연구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알지만 3년 후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어업자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수산청은 『자원 분석의 정밀도 향상은 끝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계속 노력하겠다. 관리 방법도 충분히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에 가결, 성립되어 12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개정 어업법에서는 농수성이 수산 정책 심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원 관리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참다랑어 어법·지역별 어체 사이즈 별 TAC 배분 수정도 승인했다. 중서부 태평양 참치 위원회(WCPFC)에서 상어류의 어체를 투기, 상어 지느러미만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칙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규칙의 성령화에 대해서도 승낙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러시아 시장에서 자국 명태 필렛, 중국 제품 대체 업계 전문가들은 명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현대화를 이유로 들어

러시아 명태 생산자 협회(PCA)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9년에 중국산 명태 필렛을 5,000톤 수입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2.5배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자국 명태 필렛이 중국산 제품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져 중국산 제품이 약 2,000톤 수입되었고 러시아 국내 필렛은 1.3배 증가한 1만 7,000톤이었다.

PCA 회장 Alexey Buglak에 따르면 중국산 명태 필렛 가격이 kg당 130~140 루블(1.4~1.5 달러)인데 반해 러시아 선동 명태 필렛은 kg당 205 루블(2.3 달러) 정도로 러시아 명태 필렛 가격이 높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컨설팅 회사 Agro & Food Communications의 매니징 파트너인 Ilya Bereznuke는 러시아 제품이 품질 향상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어선과 육상 가공 설비를 현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조된 선박과 신규 공장이 보다 현대적인 냉동 장비와 가공 라인을 갖춰가고 있다. 2019년에 두 개의 대형 명태 가공 공장이 문을 열었고 올해 가을에 1개의 가공공장이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까운 미래에 2개 더 건설될 계획이다. 명태 트롤선은 11척이 건조 중이다.

Bereznuke는 『러시아 선동 명태는 중국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보다 품질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Buglak 회장은 러시아의 부가가치 명태 제품(주로 필렛, 다진 어육) 연간 총생산량이 현재 7만톤에서 5년 뒤에 20만~23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9월 25일자

Mowi, 미국 알래스카 명태 냉장 분야 진출 신제품. 미국 Lidl 매장에서 Marine Harvest 상표로 판매

Mowi사가 가공한 알래스카 명태 제품이 미국의 Lidl 소매점에서 냉장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알래스카 명태생산자협회(GAPP) Craig Morris 대표는 동 제품이 네델란드 Mowi Lemmer사에서 생산하며 Marine Harvest사의 상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Mowi Lemmer사는 Mowi 그룹 소속으로 네델란드에서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 제품은 MSC 인증을 받은 알래스카 명태 필렛으로 만들어졌다.

Mowi사는 지난 몇 달 동안 Captain Omega라는 냉동 수산물 브랜드 제품을 조용히 출시하였

으며 빠르게 동 제품을 주요 소매업체인 Target과 Lidl의 유통 제품 목록에 편입시켰다.

동 제품 라인은 Mowi사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인 연어를 넘어 흰살 생선인 알래스카 명태와 대구를 사용했으며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9월 15일자



도우난 남태평양 명태 조업 초반 고전, 10~11월 조업 예측

어탐 반응은 지난 10년 최저와 비슷

홋카이도 도우난 남태평양 해역(오시마, 부리, 히다카 관내)의 명태 자망어업이 10월 1일 해금, 독립 종합연구기구인 하코다테 수산시험장에 의한 10~11월 이 해역의 자원 상태를 예측한 조사 결과는 평균 어탐 반응량이 전년 동기보다 적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2018 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8년도 어기(2018년 4월~2019년 3월)의 이 해역 명태 자망어업 어획 실적은 2만 1,200톤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적었다.

이 수산시험장은 9월 4~10일 조사선 金星丸으로 도우난 남태평양의 수심 100~500 미터를 조사, 9월 30일에 명태 산란 내유군 분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태로 보이는 어군은 오시마로부터 히다카 해역에서 관찰되며 그중에서도 히다카 해역 사마니 연안, 오시마 해역 시카베 연안에서 비교적 강한 어군 반응이 있었다. 오시마로부터 이부리 해역의 평균 반응량은 전년 동기를 하회했다.

어군 반응은 주로 수심 150미터 이상에서 있었으며, 350~400 미터 부근에 비교적 강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외 수심 250 미터 부근에서도 다소 강한 반응이 있었다.

트롤 조사 결과 어획된 명태의 체장 조성은 오시마 해역 헤산 연안 수심 300 미터 부근에서 미차장(尾叉長:머리부분 맨 앞에서 꼬리지느러미 갈라진 부분까지의 길이) 40cm 정도, 시카베 연안 수심 350 미터 부근에서 미차장 45cm 정도의 성어가 중심이었다.

하코다테 수산시험 조사연구부 무토다카시 주임 주시는 『명태가 깊은 곳에 있어 어획기 초반 고기 잡이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2년 전보다 4세어(성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연안에 다가오면 조업이 이뤄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도우난 남태평양 명태 자망어업의 2020년 어기 TAC는 4만톤으로 전 어기 대비 6,600톤 감소(지난 시즌 어획 실적 2만 3,400톤)했다. 그 중 2,400톤을 히다카 관내에 배분했다. 나머지 3만 7,600톤이 주력인 오시마·이부리 관내 이용 쿼터로 10월은 7,000톤을 상한으로 조업한다. 두 관내 모두 1일 해금으로 허가 척수 절반 이하, 나머지는 15일에 조업을 시작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6일자



일본 미야기에서 생 콩치 첫 어획 10일 케센누마 등 2개 항구 늦은 어획

기다리고 있었다! 생 콩치~.

일본 미야기현 케센누마항과 오나가와 항구에 10월 10일 대형 콩치붕수망어선이 출어해 대망의 신선 콩치 첫 어획을 맞이했다.

두 항구 모두 역대 가장 늦은 첫 어획이다.

10일 케센누마가 39.4톤, 오나가와가 24톤이었다. 12일에도 각각 출어를 했으며 13일에도 어획 예정이 있다. 모두 사이즈 조성은 1마리 130그램 이상이 중심으로, 150그램 이상은 10% 정도다.

10일 시세는 케센누마가 고가로 kg 880 엔, 저가는 666 엔으로, 평균은 794 엔이었다.

오나가와는 kg당 880 엔이 고가로 저가는 730 엔까지 기록했다. 평균 가격은 791 엔이었다. 어장은

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해역이다. 품질에 대해서는 『사이즈는 별로지만 기름기는 나쁘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두 항구도 역대 가장 느린 첫 어획이 되었으나 10일 이후에는 어획량이 계속되고 있다.

어장이 좀 더 가까이, 적어도 하루에 40~50톤의 어획이 계속되면 좋을텐데라고 한결 같이 어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12일 케센누마가 2척으로 41.3톤 오나가와가 1척으로 25톤을 어획했다. 13일 케센누마가 1척 35톤, 오나가와 2척 70톤의 어획을 예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일본 신선 콩치 7~9월 70% 감소한 1,200톤 위판가격은 90% 상승한 1198 엔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요 항구의 신선 콩치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1,013.8톤이었다. 위판가격은 83% 상승한 kg 1,165 엔이었다.

7~9월 누계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1,187.9톤, 위판가격은 91% 상승한 1,198 엔을 기록했다.

작년 9월 한달 간 어획량은 2018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2,920.3톤이었지만 올해 9월은 한

층 더 하회했다.

어항별 9월 어획량은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이 72% 감소한 919톤, 위판가격은 80% 상승한 1,148 엔이었다. 앓케시항에서는 66% 감소한 57.9톤, 2.15배인 1,212 엔이었다. 이와테현 오후나토항은 63% 감소한 36.9톤, 65% 오른 1,520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5일자



日 냉동 콩치 재고 반감된 7,000톤, 냉동 오징어 16% 증가 일본 전국 수산물 재고 통계(2020년 7월말)

7월말 현재 일본 전국 수산물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74만 7,826톤이었다.

냉동 참치와 송어, 살오징어, 새우, 염장 타라코(명란젓)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지만 냉동 고등어나 연어, 콩치, 가다랑어, 수리미는 전년을 하회했다.

조업 회복 기미가 있는 살오징어는 16% 증가한 1만 479톤이었다. 콩치는 신물이 잡히지 않아 재고 소진이 이뤄져 53% 감소한 7,008톤이었다. 연어는 8% 감소한 5만 9,309톤이었다.

냉동 참치는 20% 증가한 4만 6,471톤이었다. 이

중 날개다랑어가 3배인 9,240톤이었다. 냉동 새우는 4% 증가한 4만 8,537톤. 타라코(명란젓)는 6% 증가한 1만 6,811톤이었다.

반면 고등어는 6% 감소한 7만 2,451톤이었다. 어묵은 11% 감소한 4만 2,502톤, 낙지는 30% 감소한 1만 1,751톤이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는 조사 계속된 냉장고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5일자





일본 東洋製罐 GHD, 배양 새우에 출자 싱가포르 기업이 상용화 추진

종합 포장 용기 제조업체인 東洋製罐 그룹 홀딩스(GHD,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츠카 카즈오 사장)는 10월 8일 새우 갑각류 세포 배양 개발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Shiok Meats (싱가포르, Dr.Sandhya Sriram CEO)에 출자했다고 발표했다.

東洋製罐 그룹이 2019년부터 추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OPEN UP! PROJECT)의 일환이다. 공동 가치 창조 파트너와 함께 배양 새우, 갑각류의 상용 생산-공급을 진행, 아시아 지역의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0년 동안 축적된 용기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삶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공동

가치 창조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사회 과제 해결에 임하는 신생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Shiok Meats 투자 1호 안건으로 실시했다.

Shiok Meats는 2022년에 배양 새우 다진 고기 상업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자금 조달 총액은 1,260만 달러다. 네덜란드 투자 펀드 Aqua Spark를 필두로 싱가포르 정부 기관 및 투자 육성하는 리얼 테크 홀딩스(스미다구) 등도 참가한다.

조달 자금은 싱가포르에 건설 예정인 상용 규모의 세포 배양 파일럿 플랜트 건설 및 운영 자금으로 충당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문어 유럽 업체 구매 강해 일본 업체는 열세 서부 아프리카 여름 조업 종료

리타니와 모로코 문어 하절기 조업이 9월 30일에 종료했다. 트롤 어획이 본격화되지만 모리타니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업체들이 전체 사이즈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일본 업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리타니 수산물 무역협회(SMCP) 10월 8일까지 냉동 문어 대일 가격(톤 가격, FOB, 증개료 별도)은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상사 소식통은 『겉으로만 동결이고 증개료를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일본 업체는 (원료 확보를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세네갈과 멕시코 문어 조업이 부진해 예년보다

많은 유럽 구매자가 모로코 모리타니에 들어가 있어 경쟁이 격화되었다. 일본 업체들이 트롤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확보 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

모리타니의 문어 단지(항아리)는 일본 업체가 연말 이후의 원료로 약 3,100톤을 확보했다. 동계 조업은 모리타니 단지 조업이 11월 15일, 트롤 조업이 12월 1일, 모로코는 1월 1일에 해금될 전망이다. 문어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양관점의 거래 문의가 많고 매출도 호조다.

연말에 7번 사이즈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사이즈를 6번, 5번으로 넓혀 수요에 대응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6일자



생선 요리 1위 인상은 “건강” 마루하니치로 어식에 관한 조사

일본 마루하니치로는 10월 7일 '어식에 관한 조사 2020'을 발표했다. 생선 요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건강·건강에 좋다'가 65.5%로 가장 높았다.

'DHA를 섭취할 수 있다'가 52.8%, '밥이랑 어울린다'가 39.5%로 그 뒤를 이었다. 남녀별로 보면, 여성은 '건강·건강에 좋다' 'DHA를 섭취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남성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

<「쓰레기」, 「먹는 방법」으로 고민도>

집에서 생선 요리를 먹을 때, 어떤 일로 곤란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식사 후 쓰레기 처리가 큰 일(뼈 등)'이 36.3%, '예쁘게 먹을 수 없다'가 35.6%로 높고, '생선 구이 그릴 등 조리기구의 정리가 큰 일'이 30.3%로 뒤를 이었다. 기타 냄새에 대한 답변도 상위에 올랐다.

조사는 9월에 실시한 전국 20~59세 남녀 1,000명의 유효 회답 샘플을 집계했다. 어린이의 어식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고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사람(270명)에게 자신의 자녀(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는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지 물었는데, '매우 좋다'는 20.4%, '그럭저럭 좋다'가 46.3%로 합치하면 '좋다(전체)'는 66.7%였다.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보면 '좋아한다(전체)'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어린이 74.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3%, 초등학생 68.8%, 고등학생 65.6%, 유아(영아) 53%였다.

자신의 아이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자유 회답 형식) '뼈를 발라낸다'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먹기 좋게 한다' 22건, '뼈 없는 토막을 사용·구입' 12건, '양념을 바꾼다(좋아하는 양념을 한다)' 11건, '원하는 메뉴에 넣기' 9건으로 이어졌다.

마루하니치로는 『뼈가 있어서 생각대로 먹을 수 없거나 먹기 힘들어 먹기를 포기해 버리거나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9일자

일본 2019년 식용 수산 가공품 생산 3% 감소한 154만톤 염장 연어·송어 9만톤 하회, 신선 냉동 수산물 8% 감소한 128만톤

일본 농림수산성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일본 국내 식용 수산물 가공품(구이, 조미 김 제외)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53만 8,506톤이었다.

반죽 제품을 비롯해 전체 종류별 생산량이 전년을 밀돌았다.

품목별로는 염장 임연수어, 고등어와 멸치, 가다랑어 포 등이 전년을 상회했다.

한편, 염장 콩치, 마른 멸치, 냉동 식품인 계류 등은 대폭적으로 감산되었다.

44만톤인 어묵류에 이어 생산량이 많은 염장 연어·송어는 8만 9,500톤으로 2% 감소했다.

신선 냉동 수산물은 8% 감소한 128만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2일자



2019년 수산 식용 가공품 3% 감소 154만톤 일본 농수성, 수산가공 통계 조사 발표, 반죽제품 50만톤 하회

본 농림수산업성이 9월 11일 발표한 수산 가공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국내 식용 가공품(구이, 양념 김 제외)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53만 8,506톤이었다. 2018년 6년만에 전년을 웃돌았지만 다시 밀돌았다. 감소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고등어, 콩치, 전갱이, 오징어 등 대중 생선 전반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원료 확보가 곤란하게 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죽 제품은 2% 감소한 49만 9,920톤이었다. 50만 톤을 밀도는 것은 1959년부터이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0만톤을 초과했던 생산량도 분깃점인 50만톤을 밀돌았다.

어묵류는 2% 감소한 44만 95톤이었다. 도,도,부,현 별로는 니가타현이 상위 5만 8,007톤, 효고현이 4만 4,391톤, 치바현이 3만 4,150톤 순으로 이어졌다. 어육 햄·소시지류는 1% 감소한 5만

9,825톤이었다. 그 외 종류도 모두 감소되었다. 냉동식품은 2% 감소한 25만 432톤이었다.

자숙 계와 껍질 벗긴 새우, 생선 토막 등 냉동 해산물에 8% 감소한 13만 3,146톤에 그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플라이(튀김)와 된장 조림 등 수산물 조리 식품은 5% 증가한 11만 7,286톤이었다.

염건 제품은 3% 감소한 13만 4,784톤이었다. 전갱이, 콩치, 정어리가 감소되었고, 임연수어, 고등어는 늘었다. 염장품은 6% 감소한 16만 9,955톤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어·송어는 2% 감소한 8만 9,480톤이었다. 고등어, 대구, 명태도 감소되었다.

신선 냉동 수산물은 8% 감소한 128만 1,265톤에 그쳐 11만 5,938톤이 감소되었다. 특히 고등어류는 21% 감소한 36만 29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4일자

일본 8월 해산물 수입 9% 감소한 14만톤

미국, EU 등으로부터 수량, 금액 두 자릿수 감소

일본 재무성이 9월 16일 발표한 무역 통계 속보에 따르면 8월 일본 해산물 수입은 수량이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14만 1,418톤, 금액은 15.8% 감소한 1,027억 4,300만 엔이었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지역에서 수량, 금액 모두 전년을 하회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아시아는 수량이 8% 감소한 7만 2,641톤, 금액이 10.9% 감소한 533억 2100만 엔이었다. 이 중 중국은 수량이 4.4% 감소한 2만 6,183톤, 금액이 6.8% 감소한 190억 200만 엔이었다.

ASEAN에서는 수량이 19.1% 감소한 2만 7,460톤, 금액은 17.1% 감소한 218억 9,100만 엔이었다. 한국은 수량이 9.4% 증가한 5,383톤, 금액은 5% 감소한 38억 7,400만 엔이었다.

미국의 경우 수량이 13.9% 감소한 1만 9,289톤, 금액은 11.3% 감소한 87억 7,700만 엔이었다.

러시아는 수량이 41.2% 감소한 5,610톤, 금액은 47.8% 감소한 49억 8,400만 엔이었다. EU로부터는 수량이 20.6% 감소한 2,667톤, 금액은 10.5% 감소한 26억 5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7일자



문어 양식 기술 확립에 진전

일본 수연구소기구 문어끼리 잡아먹는 것 방지 시스템 개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문어의 양식 기술 확립을 위한 큰 걸음이 내디뎠다.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수연구소기구)는 성장 시 과제였던 새끼 문어가 동료들을 잡아먹는 습성을 방지하는 사육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사육한 새끼 문어 중 약 40%를 출하할 수 있는 크기까지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참문어는 성장이 빨라 약 1년에 출하 사이즈로 되고, 좁은 장소에서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양식 어종으로 손꼽혀 왔지만, 인공 종묘 생산이 어려워 양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 농수성의 통계에 따르면 문어류의 일본 국내 어획량은 정점이었던 1968년에 약 10만 2,000톤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3만 5,000톤에 그쳤다.

참문어에 한정된 어획량 데이터는 없지만 수연구소기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참문어 어획량은 같은 양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수연구소기구는 2017년에 도쿄 해양대와의 공동 연구에서 수류장치(水流装置)를 설치하고, 먹이 공급 연구를 통해 생산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부화 후 수중에 부유하는 상태에서부터 물밑에 가라앉아 지내는 착저기(着底期)까지의 생산율은 기존 10% 대였지만 80~90% 정도까지 크게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바닥에 가라앉은 후의 새끼 문어는 영역 다툼이 치열하고 동료들을 죽이기 때문에 출하 사이즈인 500g 정도로 성장시킬 수 없었다.

이번 연구는 같은 문어끼리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체를 별도의 용기에 넣어 개별 사육했다. 부모로부터 수정란을 얻어 지난해 6월에 부화시켰다. 착저기(着底期)까지 키운새끼 문어 156개체를 같은 해 8월부터 개별 사육하여 10개월 후인 올해 6월에는 73개체가 살아남았다.(생산율 46.8%)

이 중 65개체는 출하 사이즈인 500g이었고 그중 25개체는 1kg을 넘어섰다. 최대 약 1.5kg이 된 개체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높은 밀도에서 효율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바닥 면적 약 1㎡ (용적 약 0.2㎡) 당 12개체를 사육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 사육 용기의 개량, 사료 및 용기 바닥의 잔여 먹이 제거 등의 기계화에 의한 인건비 절감, 폐쇄 순환 장치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에도, 양식 기법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연구소기구는 『아직 천연물보다 성장 속도는 떨어지지만 앞으로 먹이와 수온 등의 연구를 하여 천연물을 능가하는 양식 문어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기대를 나타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1일자



대일본수산회 30일부터 씨푸드쇼 개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위해 QR 코드로 입장 관리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국내 최대의 수산박람회 '재팬 인터내셔널 푸드 쇼'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쿄 빅 사이트(도쿄도 코토구)에서 열린다.

주최인 대일본수산회는 9월 10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회 개요를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책으로 QR 코드를 사용한 입장객 관리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대일본수산회의 内海和彦 전무는 『코로나 유행병으로 힘든 중이지만 수산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장래 꿈을 잇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는 입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1일 회의장 체류자 수가 상시 2,750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참가 업체를 포함, 입장객에게 QR 코드가 부착된 입장권을 사전에 인쇄토록 해 입장객 수를 관리한다. 입장객은 회의장에서 체온과 건강 체크 시트 제출 외에 마스크 또는 페이스 가드 착용을 의무화 한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 입장객 전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데이터화하고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한다.

3밀(密) 대책으로 부스, 청중과의 거리를 확실히 유지, 회의장 내 도어를 모두 개방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버튼이나 난간 등에 대해서는 소독 작업을 1시간마다 실시한다.

코로나 재난에 의한 '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의 확대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산 가공품 등이 많이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동북 부흥 수산 가공품 전시 상담회' 코너를 설치한다. 6월에 센다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지된 동 상담회를 씨푸드 쇼 내에서 열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북의 수산 회사를 지원한다.

<1만 2,000명 방문 전망>

이번 전시에 출전하는 기업, 단체는 300곳 정도, 방문자 수는 총 1만 2,000명으로 전망한다. 해외에서의 출전은 대리 출전 서비스와 온라인 출전을 포함해 11개국(지역)을 예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4일자

일본 2020년도 수산 백서 「마켓 인」 특집

일본 수산청 12월 목표로 백서 골자 안 작성

일본 수산청은 9월 10일 열린 수산 정책 심의회 기획 모임에서 2020년도 수산 백서 특집 테마를 「마켓 인」 발상으로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대체로 양해를 얻었다. 특집에서는 생산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요구)를 고려한 「마켓 인」 노력의 중요성과 사례,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할 방침이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위원들로부터는 테마 방안에 찬성 의견이 많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 확대에 따른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달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을 총괄해 달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JF全漁連과 전일본해원조합은 『기후 변화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기술하라』고 호소했다.

일본 수산청은 12월 초를 목표로 백서의 골자 안을 작성한다. 이 모임에서 논의를 거듭, 내년 5월 중순의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4일자



日 TAC 관리 새로이 방어, 참돔 등 15종 로드맵 초안 공표

수산청이 자원 관리 행정 방안 내놓아

일본 수산청은 9월 11일 2023년까지 총 허용 어획량 (TAC) 관리를 새롭게 하는 어종 후보 15종 등을 담은 '새로운 자원 관리를 위한 로드맵 초안'을 공표했다.

TAC 관리의 확대는 과학적인 의견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어종부터 2021년~2023년도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태평양 고등어류와 홋카이도 정어리 등 일부 어종은 2021년도부터 TAC 쿼터를 어선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IQ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10년 후의 목표로 어획량 444만 톤(10년 전 수준으로 회복)을 내걸었다. 로드맵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TAC 어종 후보는 멸치, 방어, 눈통멸, 대구, 가자미류, 임연수어, 삼치, 참돔, 넙치, 복, 금눈돔, 갈고등어류, 까나리, 홍게, 셋멸이다.

이들 후보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 관리 방법 검토 부회(가칭)를 설치하고 어업자를 포함한 협의를 실시한다. TAC는 원칙적으로 어획량을 규제하지만 어업이나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복수 업종을 하나로 관리하거나, 출어 일수 등의 어획 노력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인정한다.

2021년 중에 IQ를 시작하는 어종에는 태평양 참고등어·망치 고등어, 홋카이도의 정어리, 참다랑어 대형어, 남방 참다랑어, 대서양 참다랑어를 열거했다. 2022년도 이후에도 TAC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관 허가 어업부터 IQ 관리를 해나간다. 어업자는 농림 장관과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IQ 쿼터를 이전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자원 상태를 평가하는 어종은 올해 67종인데 2021년도에 119종, 2022년도에 약 200종까지 확대되었다.

TAC 어종 이외의 자원 관리는 자주적 조치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자원 관리 계획'에서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효과 검정·공표하는 '자원 관리 협정'으로 2023년도까지 이행해 나간다. 자원 관리 협정에 참여하는 어업자는 어업 종사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어업 소득 안정 대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4일자

코로나 「실적에 악영향」 80%, 4개월 연속 감소 일본 데이터뱅크, 8월 기업 의식 조사

일본 데이터뱅크(도쿄도 미나토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기업 의식 조사(8월)를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것은 82.5%(지난 7월 조사 대비 0.2 포인트 감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조사는 8월 18일~31일에 실시해 1만 2,000개 회사에서 유효 회답을 얻었다. 신종 코로나에 관한 조사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다.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이미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가 68%(지난 7월 조사 대비 0.4

포인트 감소), 「향후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가 14.4%(지난 7월 조사 대비 0.1 포인트 증가)였다.

한편, 「플러스 영향이 있다」고 한 것은 3.8%(지난 7월 조사 대비 0.7 포인트 증가), 「영향은 없다」고 한 것은 9.3%(지난 7월 조사 대비 0.9 포인트 감소)이었다.

디지털 시책으로의 대처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75.5%, 「노력하지 않는다」는 19.7%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0일자



일본공고 「코로나 수습 후 과제」 조사

제조업·도매업, 수요 변화 대응 상품 개발... 소매업·음식업, 위생, 판로 대책

일본 정책금융공고(일본공고)는 9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을 식품 관련 기업에게 조사한 「식품 산업 동향 조사(7월)」 결과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수습 후 경영 재건과 발전 과제(3개 까지 복수 응답)는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상품, 생산물 재검토, 개발」이 제조업에서 55.3%, 도매 48.6%로 각각 최다였다.

소매업은 「위생 대책을 배려한 시설 정비, 관리면 강화」가 52.1%로, 음식업은 「판로 다양화」가 58.1%로 가장 많았다.

조사는 전국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의 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7월에 우편 조사를 실시해 2,771개에서 유효 회답을 얻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매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음식업에서 95.3%, 제조업 75.1%, 도매 71.1%였다.

한편으로 소매업에서는 「플러스 영향이 나오고 있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 이상이였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제조업과 도매업이 「영업·상담 자숙, 연기, 중지」가 최다였다. 이어 「국내 기존 판로·배송 루트의 축소, 정지」가 많았다.

한편, 소매업과 음식업은 「영업(가동) 일수의 감소」가 가장 많았고, 판매 예약 취소, 내점자 감소가 뒤를 이었다.

국내 산지와의 향후 거래에 대해 「늘리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은 제조업이 29%, 도매업 44.1%, 소매

업 36.8%, 음식업 27.7%였다. 「줄이고 싶다」고 한 것은 각각 0~1.4%에 그쳤고, 그 외는 「현상 유지」이다.

국내 산지와의 거래를 늘리고 싶은 이유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에서 「판매처(소비자 측)의 국산 지향 고조 등으로 수요 증가(수요 확대)」가 최다였다.

음식업은 「생산·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산지와의 거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다(안전성)」가 가장 많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11일자

질병관리본부
KDC

유증상자 행동수칙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자**
- 등교·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
- 의료기관 방문 시 차차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노르웨이 Aker BioMarine사 남극 크릴조업 지원선 진수 168m 규모, 2021년부터 투입 예정

크릴 어업 및 가공회사인 노르웨이 Aker BioMarine사는 CIMC Raffles사의 Yantai 조선소에서 남극 크릴조업 지원선을 진수했다.

이 선박은 2021년 크릴 수확 시즌에 맞춰 시운전 및 최종 설비 설치 준비를 마쳤다.

신조선은 길이 168m로 동급 최고의 연료 효율을 보여주는 Wartsil 31 엔진을 장착했다. 이 엔진은 연료 효율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4행정 디젤 엔진으로 미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 스티어링은 제로 피치(zero pitch) 손실을 피하고 수중 소

음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제어 스티어링을 장착했다. 어창은 4개로 최대 용량이 4만m³이며 각 어창 위에는 이동 가능한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 위치 유지 장치(Dynamic Positioning, DP) 기능 향상으로 전재 중에 정박할 필요가 없다.

이 선박은 기존 지원선인 La Manche선을 대체하여 투입되며 크릴과 선원을 Aker BioMarine사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물류 허브로 운송할 예정이다. 현재 크릴 조업은 제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9월 24일자



ICES 대서양 고등어 2021년 쿼터 권고량 8% 감소한 85만톤

각 어업국 준수는 불투명

국제해양개발협의회(ICES)는 9월 30일 2021년의 북동 대서양 고등어의 어획 쿼터를 85만 2,284톤 이내로 하도록 권고했다.

전년의 권고량보다 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어획국이 자국에 많은 쿼터를 설정해 총 쿼터가 ICES의 권고를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권고도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ICES가 2020년 대서양 고등어의 어획량으로 권고한 것은 92만 2,064톤이었다. 단, 어획에는 노르웨이, 유럽연합(EU), 페로제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러시아 등이 참여한다. 전체 어획국을 묶는 틀이 없고, 일부는 독자적인 어획 쿼터를 정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획 쿼터 합계는 ICES의 권고보다 20% 가량 많은 109만 879톤으로 되어 있다.

ICES는 2018년에 대서양 고등어의 약어(若魚: 어린 물고기) 발생 감소 등을 우려해 어획량을 68%

줄여 약 32만톤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상태로는 너무 많이 잡았다는 평가로 북동 대서양산 고등어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이 정지되는 등의 영향이 나왔다. 당시의 ICES 자원 평가 방법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어 2019년 여름에는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수정 후 권고는 약 77만 톤까지 어획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상향 조정에 따라 관계국은 어획 쿼터를 증가시켜 최종적인 총 쿼터는 약 86만톤, 실제 어획량도 약 84만 톤으로 권고를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CES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대서양 고등어의 친어 자원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의 어획 압력은 최대 지속 생산량(MSY)의 달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0월 5일자

NAFO 2021년 대구 쿼터 삭감, 새로운 회원국 환영 올해 대비 82% 삭감, 과학위원회 권고보다는 높게 설정

북서대서양어업기구(NAFO) 연례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3M 수역이었다. 연례회의에서 과학위원회는 3M 수역 대구에 대해 가입량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쿼터를 1,000톤으로 권고했다. 1,000톤은 올해 쿼터량 8,531톤 대비 88% 감소한 수치이다.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3M 수역 대구 쿼터 1,500톤, 입항 관련 의무사항 증가, 대구 치어 보호 목적으로 대구 조업 트롤선 최소 그물 사이즈 55mm 이상으로 설정, 2021년 1분기 조업 금지 등이다.

2021년도 3M 수역 새우 조업 일수는 2,640일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NAFO 사무국장 Stphane Artano는 영국이 NAFO의 13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환영했다. 영국은 올해 9월 NAFO에 가입했다.

대구 쿼터 1,500톤은 EU에 716톤,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덴마크에 335톤, 영국에 140톤, 노르웨이에 139톤, 러시아, 쿠바, 캐나다에 100톤 미만으로 배정되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10월 2일자



WTO 미국의 對중국 로인 관세는 무역 규칙 위반 미국 항소 예상, WTO 항소 기구 마비로 동 건 교착될 수 있어

WTO는 2018년 이후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정당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초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항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15일에 『미국이 2018년에 약 3,6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초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세금이 과도하고 차별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비켜 나갈만한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속 로인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며, 가다랑어, 방어, 명태와 같은 어종은 물론 캔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참치 수출은 추가 관

세가 부과된 이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참치 공급업자 및 구매업자들이 당장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이 WTO 항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판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해당 건은 법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AP통신은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9월 16일자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제외를 1년 연장 사료용 어분 등 포함

중국 국무원 관세 세척위원회는 추가 관세 대상으로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과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16개 품목의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동 품목의 수산 관련은 새우 및 새우 치어, 사료용 어분 2개 품목이 포함된다. 기간은 2021년 9월 16일까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입품 5000여개에 대

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과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은 대체 수입처 확보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추가 과세 면제 조치가 취해졌었다. 기한 연장 지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에 동위원회가 "제1탄"이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한 16개 품목이다. 수산 품목 외에는 윤활유와 사료용 유청(乳清) 등이 포함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9월 29일자



무르만스크에 첨단 어류 가공 공장 문 열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회사들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 도입

무르만스크에 새롭게 문을 연 가공 공장은 신선 또는 선상냉동 저서어류를 모두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 어류 가공 기술을 도입했다.

이 공장은 Murman Seafood사 소유로 러시아 정부의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완공되었다.

아이슬란드 회사인 Valka사는 이 공장 설계자이자 주 계약자로 가시 제거 및 어체 분할을 위한 손질 라인(trimming line), 수압절단기(waterjet cutter)를 비롯해 다양한 선별기(grader), 포장 설비, 제조 실행 소프트웨어(Manufacturing Execution Software)

고도로 자동화된 이 공장은 전통적인 블록 냉동과 개별 급속 냉동 모두 가능하다.

아이슬란드 및 다른 북유럽 국가의 전문 공급 업체들도 공장 건립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Velfag사는 필렛 기술을, Skaginn 3X사는 개별 급속동결 시스템(IQF systems)과 어분 라인을, Kapp사는 냉각 및 유체 얼음 시스템(fluid ice systems)을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Cabinplant, Seagain, Hillerslev, DSI사 등이 참여했다.



를 제공했다.

* 기사 출처: Fisker Forum, 2020년 9월 23일자



바다가 설 때는

이 해 인

여름에 왔던
 많은 사람들로
 몸살을 앓던 바다가
 지금은 조용히 누워
 혼자서 쉬고 있다



흰 모래밭에
 나도 오래 누워
 쉬고 싶은 바닷가

노을 한 자락 끌어 내려
 저고리를 만들고
 바다 한 자락 끌어
 치마를 만들면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내가 혼자인 것이
 외롭지 않다





10월부터 해수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관세청 업무 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관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

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냉장명태, 냉동꽂치, 냉동조기, 냉장갈치, 냉장홍어,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 해수부,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 -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 11.~31.)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

—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정부 직권 TAC 설정 —

앞으로는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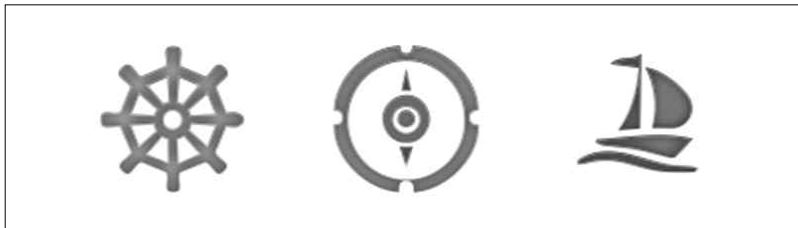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2개*까지 적용대상 어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대상 어종·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AC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 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신속하게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TAC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하여 어획한 업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TAC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TAC 시범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등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음성)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해 왔고 조업일지도 매번 수기로 일일이 작성,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1월부터 전자 어획실적 보고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사용자 시험과 시범적용 등을 거쳐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어업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기능은 현재 5만 1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 알리미’ 응용프로그램(Ap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업인이 프로그램 내의 ‘위치 및 어획보고’ 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가 이루어지면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간의 어획보고 이력조회도 가능해져 어업인들이 전자 조업 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

범사업’ 대상 152척은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필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결합되어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품원, 새우 신종 바이러스 질병 진단 표준물질 국제 공여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 공식 요청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특허 기술로 구축한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진단용 양성 표준물질’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의 수산생물질병 실험실에 공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새우 양식장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수생동물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양지역 대표 사무소는 회의(온라인)를 개최해 32개 회원국과 이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각 나라들은 질병 진단에 필요한 양성 표준물질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OIE에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출법에 사용하는 양성 표준물질은 해당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를 사용하는데, 신종 질병은 국가마다 발생상황도 다르고 해당 병원체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양성 표준물질이 반드시 필

요한 상황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 지정 전문가 김형준 박사는 수품원 특허 기술로 구축한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의 유전자 검출용 양성 표준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고, OIE 수생동물위원회 및 다수의 국가로부터 분양을 요청받게 되었다.

수품원은 어류 질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분야에 대해서만 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유전자 진단법은 기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모든 병원체 유전자 검출에 쓰이는 표준물질 제조 특허 기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외에 필요한 다른 나라에도 적극 공조하여 국제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차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총괄
		소기동 차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진호정 차장	선망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연수·오징어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북양, 콩치	
최동환 주임	기타트블		
부산지부	-	이형균 부장(겸직)	총괄
	김현애 과장	(051)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비고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OFIS, 해외투자, 행정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김지은 전문관		044-868-7363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對 중국 업무 對 일본 업무	
	이지현 전문관	044-868-7832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6호

발행 : 2020년 10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 **윤명길**
편집인 :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물시장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관(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교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 초청, 조사, 용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분(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쓱! 쓱! E-News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